

일본 포스트모던 교회의 선교적 재설계 연구: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매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박민규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Minkyu Park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THE MISSIONAL REDESIGN OF THE POSTMODERN JAPANESE CHURCH: A CASE STUDY OF AISHIN INTERNATIONAL CHRISTIAN CHURCH (AICC)**

Minkyu Park

Aishin International Christian Church, Nagoya, Japan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Japanese Protestant church, which remains below 0.4% of the population and continues to experience decline, aging, and social isolation. It argues that the primary cause lies not in methodological shortcomings but in the APC paradigm (Attractional-Propositional-Colonial operating system) shaped during the modernist era. This paradigm stands in tension with Japan's cultural codes—wa consciousness, group belonging, and shame orientation—and fails to engage the 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rich, and connective modes of communication characteristic of postmodern Japanese society.

As an alternative, the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MRI-EPIC model: the MRI operating system (Missional-Relational-Incarnational) and the EPIC interface (Experiential-Participatory-Image-rich-Connective). MRI reframes church identity from “come” to “go,” community from propositional assent to relational discipleship, and approach from colonial assimilation to incarnational presence within specific communities.

EPIC functions as the cultural interface that translates this operating system into forms resonant with postmodern sensibilities.

A qualitative case study conducted at Aishin International Christian Church (AICC) in Nagoya—based on 4.5 years of participant observation and six months of focused data collection—illustrates this dual transition. Findings indicate: (1) AICC’s movement from APC to MRI unfolded gradually through crises, revealing paradigm change as a processual journey; (2) the three MRI elements operate in a perichoretic circular relationship, each presupposing and reinforcing the others; and (3) MRI and EPIC form a mutually reinforcing dynamic in which the operating system is embodied and culturally translated through EPIC, while EPIC experiences deepen and expand MRI content.

The study contributes to church renewal discourse by shifting attention from methodological adjustment to the transformation of both operating system (OS) and interface (UI). This framework reconfigures the church’s identity, communicative posture, and cultural engagement, offering an analytical tool for congregations navigating postmodern contexts. It concludes that sustainable renewal requires a paradigm shift from APC to MRI-EPIC, supported by a practical three-stage roadmap of Diagnosis, Introduction, and Inculturation.

## 국문초록

### 일본 포스트모던 교회의 선교적 재설계 연구: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박 민 규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 나고야, 일본

본 연구는 전체 인구의 0.4% 이하에 머물며 감소, 고령화,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는 일본 개신교회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한다. 연구는 그 근본 원인이 방법론적 한계가 아니라 근대주의 시대에 형성된 APC 패러다임(Attractional-Propositional-Colonial 운영체제)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 패러다임은 일본 사회의 와(和) 의식, 집단 소속감, 수치 중심 문화와 긴장 관계에 있으며,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체험적·참여적·이미지 중심·연결적 소통 방식과도 부합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MRI-EPIC 통합 모델을 제안한다. MRI 운영체제(Missional-Relational-Incarnational)는 교회의 정체성을 “오라”에서 “가라”로, 공동체를 명제적 동의에서 관계적 제자도로, 접근 방식을 동화 중심의 선교에서 구체적 지역 공동체를 향한 성육신적 사랑으로 재구성한다. EPIC 인터페이스(Experiential-Participatory-Image-rich-Connective)는 이러한 운영체제가 포스트모던 사회의 문화 언어와 연결되도록 매개한다.

나고야의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AICC)를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4.5년의 참여관찰과 6개월의 집중 자료 수집-은 이러한 이중 전환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ICC의 APC에서 MRI로의 이동은 위기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진행된 과정적 전환이었다. (2) MRI의 세 요소는 상호 내재적(perichoretic) 순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전제하고 강화한다. (3) MRI와 EPIC은 단순한 도구-내용 관계를 넘어 상호 강화적 역동을 형성하며, EPIC 경험은 MRI의 내용을 심화·확장시키고 MRI는 EPIC을 통해 문화적으로 구현된다.

본 연구는 교회 갱신 담론을 방법론 조정의 차원을 넘어 운영체제(OS)와 인터페이스(UI)의 이중 전환으로 확장한다. 이 틀은 교회의 정체성, 소통 방식, 문화적 태도를 재구성하며, 포스트모던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교회들을 위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진단-도입-토착화의 3단계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갱신은 APC에서 MRI-EPIC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함을 결론짓는다.

## 목차

감사의 글 .....	xi
표 목차 .....	xii
그림 목차 .....	xiii
사진 목차 .....	xiv
I. 서론: 왜 일본 교회는 ‘재설계’를 필요로 하는가? .....	1
A. 연구의 배경 및 문제 제기 .....	1
B. 연구의 목적 .....	3
C. 연구의 질문 .....	4
D. 연구의 방법론 .....	5
E. 논문의 구성 .....	7
II. 일본 교회 위기의 근원 진단: APC 패러다임의 역사와 한계 .....	9
A. APC 패러다임의 세 가지 축: 개념적 이해 .....	10
1. 유인적(Attractional) 모델: ‘사람을 오게 하는 건물 중심’ 모델 .....	10
2. 명제적(Propositional) 모델: 신앙 전달의 소통 방식으로 이성과 교리를 강조 .....	11
3. 식민적(Colonial) 모델: 문화적 민감성 부재한 선교 태도의 역사적 잔재 .....	11
B. APC 패러다임이 일본 교회에 미친 영향 .....	12
1. 유인적 모델과 전후 일본 교회 개척 방식의 연관성 .....	12

2.	명제적 신앙 전달과 일본 지식인 중심 선교의 고착화 .....	14
3.	식민적 선교 태도의 장기적 영향 .....	16
C.	종합 평가: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에서 APC 패러다임의 붕괴 .....	19
1.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의 특징 .....	19
2.	APC 패러다임의 전면적 부적합성 .....	20
3.	통계적 침체의 패러다임적 해석 .....	21
III.	대안 패러다임의 제안: MRI 운영체제와 EPIC 인터페이스 .....	23
A.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운영체제(OS) 재설정과 인터페이스(UI) 업데이트 .....	23
B.	새로운 운영체제: MRI의 삼중 구조 .....	24
1.	선교적(Missional) 정체성: ‘오라’에서 ‘가라’로 .....	25
2.	관계적(Relational) 공동체: ‘믿음의 동의’에서 ‘제자 됨의 관계’로 .....	26
3.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 ‘민족 국가’에서 ‘문화/우편 번호’로 .....	27
C.	새로운 문화적 인터페이스: EPIC의 네 가지 채널 .....	28
1.	체험적(Experiential): ‘이해’를 넘어선 ‘맛봄’의 경험 설계 .....	29
2.	참여적(Participatory): 수동적 청중에서 적극적 공동 창작자로 .....	30
3.	이미지 중심적(Image-rich): 언어적 논리를 넘은 비주얼 스토리텔링 .....	31
4.	연결적(Connective): 개교회주의를 넘은 네트워크형 관계 형성 .....	31
D.	Leonard Sweet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34

E.	통합 모델로서의 MRI-EPIC: 건강한 OS 위에 구축된 효과적인 UI .....	35
IV.	<b>사례 연구: MRI-EPIC 모델의 현장 검증 -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b> .....	37
A.	사례 선정 이유: 국제교회로서의 특수성과 모델 검증의 적합성 .....	37
B.	연구 방법론 .....	38
1.	연구 현장 및 참여자 .....	39
2.	자료 수집 .....	39
3.	자료 분석 .....	40
C.	AICC 에서 나타난 APC 패러다임의 극복 및 MRI 패러다임의 구현 사례 분석 .....	41
1.	유인적(Attractional) 모델을 넘어선 선교적(Missional) 실천 ...	41
2.	명제적(Propositional) 소통을 넘어선 관계적(Relational) 소통 .	46
3.	식민적(Colonial) 동화에서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으로의 전환 .....	50
D.	AICC 의 MRI 패러다임 분석: 순환적 역동성과 통합적 적용 .....	58
1.	APC 에서 MRI 로의 점진적 전환 과정 .....	58
2.	MRI 세 요소의 상호 내재성과 순환적 역동성 .....	59
3.	MRI 패러다임의 선교적 함의: 통합적 적용의 필요성 .....	60
E.	AICC 에서 나타난 EPIC 인터페이스 모델의 구현 사례 분석 .....	61
1.	체험적(Experiential) 요소: '맛봄'으로서의 예배 .....	62
2.	참여적(Participatory) 요소: 공동 창작자로서의 회중 .....	65
3.	이미지 중심적(Image-rich) 요소: 시각적 비유를 통한 소통 .....	69
4.	연결적(Connective) 요소: 관계 네트워크로서의 공동체 .....	73

F.	EPIC 요소의 통합적 작동: MRI 운영체제를 위한 인터페이스 .....	75
G.	종합: EPIC 인터페이스와 MRI 패러다임의 순환적 관계 .....	77
V.	<b>논의 및 실천적 제언: 일본 교회를 위한 재설계 로드맵</b> .....	80
A.	사례 연구 결과의 종합 및 이론적 논의 .....	80
1.	APC 에서 MRI-EPIC 으로의 전환에서 발견된 핵심 과제 .....	80
2.	MRI-EPIC 모델의 신학적·선교적 의의 .....	82
3.	국제교회 모델이 전통 일본 교회에 주는 도전과 격려 .....	82
B.	실천적 제언: 일본 교회 재설계를 위한 3 단계 로드맵.....	83
1.	1 단계: 진단과 마인드셋 전환 (From APC).....	83
2.	2 단계: 핵심 실천 도입 및 훈련 (To MRI-EPIC) .....	84
3.	3 단계: 문화화 및 지속 가능성 구축 (As MRI-EPIC) .....	87
C.	연구의 이론적 기여와 한계 .....	90
VI.	<b>결론</b> .....	95
A.	연구 요약: 일본 교회 위기의 근원과 대안 패러다임 .....	95
B.	연구의 핵심 발견: MRI-EPIC 통합 모델의 현장 구현과 역동성 .....	96
C.	최종 주장: 지속 가능한 갱신은 MRI-EPIC 의 순환적 역동성을 통한 운영체제 전환에서 온다 .....	99
D.	연구의 희망적 전망: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 속에서 순환적 역동성을 살아내는 교회 .....	100
	<b>참고문헌</b> .....	103

## 감사의 글

일본 선교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며 시작한 학업의 여정이 드디어 논문이라는 결실로 맺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길입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보는 통찰력과 교회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학문과 목회의 깊이를 일깨워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 조병호 교수님, 김영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지도로 논문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영래 교수님과 정진욱 교수님의 헌신적인 가르침은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기도로 언제나 힘이 되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바쁜 와중에도 굶은일 모두 맡아서 해준 사랑하는 동생,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양가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도에 커다란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쓰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6년 5월

박민규

## 표 목차

(표 1) 일본 문화 핵심 코드와 APC 패러다임의 충돌 지점

(표 2) AICC의 MRI 운영체제에서 나타난 EPIC요소

(표 3) 지속 가능한 갱신을 위한 근본 질문

## 그림 목차

(그림 1) AICC 기도일기

(그림 2) 각 나라 언어로 주세 성구가 쓰여 있는 AICC 주보

(그림 3) MRI의 삼위일체적(Trinitarian) 성격

## 사진 목차

- (사진 1) 추수감사절 봉헌된 과일
- (사진 2) 추수감사절 전교인 노숙자 섬김
- (사진 3) 추수감사절 전교인 노숙자 예배
- (사진 4) 추수감사절 전교인 노숙자 구호물품
- (사진 5) 기능실습생 성경회
- (사진 6) 일본어능력시험장 차량지원
- (사진 7) AICC의 예배 중 성도의 교제
- (사진 8) 여러 언어로 가사를 제공하는 AICC 경배와 찬양 시간
- (사진 9) 2022년 성인식
- (사진 10) 2023년 일본인 교인 T 장례식
- (사진 11) 좌측위의 카미다나(神棚)와 부즈단(仏壇)을 정리하는 새출발 감사예배
- (사진 12) 2022년 중국인 교인 N 혼인식
- (사진 13) 미에현에서의 교회 밖 세례식
- (사진 14) Family Worship 찬양 시간
- (사진 15) Family Worship 어린이들 예배 참여
- (사진 16) 국제식탁교류회
- (사진 17) N교회 아웃리치
- (사진 18) 설교 중 일본 전통공예 킨즈기(金継ぎ)를 통해 ‘증인된 삶’ 을 비유
- (사진 19) 자수의 뒷면 실타래처럼 보이는 인생
- (사진 20) 인생 이면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

(사진 21)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식

(사진 22) 부활 주일 예배당을 장식한 하얀색 풍선

(사진 23) 하얀색 풍선(부활의 기쁨)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

(사진 24) 청년들과 관계 속에서 전달하는 복음

(사진 25) 청년들과 세상과 연결되는 복음을 알리는 소풍

# I. 서론: 왜 일본 교회는 ‘재설계’를 필요로 하는가?

## A. 연구의 배경 및 문제 제기

일본은 ‘선교사의 묘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세계에서 난해한 선교지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통계 수치로도 명백히 드러난다. 인구 1억 2천 3백만 명의 선진국이면서도, 개신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0.4% 미만에 불과하다.<sup>1</sup>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수치가 최근 수십 년간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의 평균 교인 수는 15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담임 목회자 없이 운영되는 ‘무목교회’는 1,000곳 이상에 달한다.<sup>2</sup> 초고령화로 인한 신앙 세대 간 승계 단절, 사회적 고립, 신학적 분열 등은 일본 교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다양한 측면들이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많은 연구자와 선교 실무자들은 그 원인을 일본 문화의 특수성, 전후 사회 변동, 혹은 선교 방법론의 부재 등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들이 문제의 표면적 징후를 다루는 데 머물렀다고 진단한다. 일본 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방법론적 실패나 문화적 장벽 이상의 근본적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의 종교 지형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진단의 출발점이 된다. 일본은

---

<sup>1</sup> 일본복음선교회(JEM), *제8회 일본선교 아카데미 자료집*, 서울: JEM, 2023.

<sup>2</sup> 日本基督教団, 『日本基督教団年鑑 2023年版』, Tokyo: 日本基督教団出版局, 2023.

전통적으로 신도(神道)와 불교가 공존하는 복합적 종교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신도 인구 88%, 불교 인구 78%로 집계되어(중복 응답 가능)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본인이 특정 종교에 전속되지 않은 ‘관습적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다.<sup>3</sup> 기독교는 이 지형에서 0.4%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소수 종교에 불과하다.<sup>4</sup>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인의 종교 인식 자체가 서구 기독교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일본인에게 종교는 절대적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 ‘필요적 종교’로서 기능한다.<sup>5</sup> 즉, 삶의 특정 국면(출생, 결혼, 장례, 수험, 사업 번창)에서 의례적으로 찾는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종교관 속에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회개, 헌신의 메시지는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에 직면한다.<sup>6</sup>

전후 일본 사회에서 종교는 더욱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는 경향을 보였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는 전통적 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대다수 일본인은 스스로를 ‘무종교’라고 인식하는 데 주저함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무종교 상태라기보다, 특정 종교 조직에 귀속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종교적 관행을 삶 속에 유지하는 ‘일본형 영성’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sup>7</sup>

이러한 문화적·종교적 토양 위에 도입된 서구 선교의 패턴은 일본 교회의

<sup>3</sup> 井上順孝, 『日本人の宗教観』, 東京: 講談社現代新書, 1991, 20-35, 70-85.

<sup>4</sup> 文化庁, 『宗教年鑑2023年版』, 東京: 文化庁, 2023, 第1部「宗教団体別信者数」, 約0.4%.

<sup>5</sup> 井上順孝, 『日本人の宗教観』, 18-35, 70-90.

<sup>6</sup> Ian Reader, *Religion in Contemporary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5-12, 55-78, 204-210.

<sup>7</sup> Ibid., 1-5, 12-20, 54-60, 204-210.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이 패턴을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이 제시한 APC 패러다임(Attractional, Propositional, Colonial)의 개념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인적(Attractional) 교회 모델은 ‘사람을 교회 건물로 오게 하는 것’에 집중하며, 일본 사회에서 교회를 고립된 ‘문화적 섬’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명제적(Propositional) 신앙 전달 방식은 이성적 교리 이해를 중시하여, 일본인의 감성적·관계적·체험적 종교 성향과 소통에 실패했다. 식민적(Colonial) 선교 태도는 서구 문화와 신학을 보편적 기준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독교가 일본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성육신적(Incarnational)’ 과정을 가로막았다.<sup>8 9</sup>

따라서 일본 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침체기가 아니라, 모더니즘 시대에 형성된 APC 운영체제가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과 충돌하며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패러다임의 위기로 규정되어야 한다.

## B. 연구의 목적

구체적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교회의 위기를 APC 패러다임의 개념들로 분석하여 그 근본 원인을 규명한다. 둘째, MRI-EPIC 통합 모델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의 맥락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킨다. 셋째, 2021년 일본 나고야에 설립된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Aishin

---

<sup>8</sup> Alan Hirsch, *The Forgotten Ways: Reactivating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6), 63-85, 89-110, 133-160.

<sup>9</sup> Leonard Sweet, *Post-Modern Pilgrims: First-Century Passion for the 21st-Century Church*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25-35, 40-55, 120-140.

International Christian Church, 이하 AICC)를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MRI-EPIC 모델의 현장 구현 가능성과 실제적 성과를 검증한다. 넷째,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일본 교회(전통적 단일문화 교회, 고령화 농촌 교회, 소형 도시 교회)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재설계 로드맵을 제시한다.

### C. 연구의 질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 질문을 갖는다. 일본 교회의 지속적인 쇠퇴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교회 모델은 무엇이며, 이 모델은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세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APC(유인적, 명제적, 식민적) 패러다임은 일본 교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현재의 정체성 및 실천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의 문화적 코드(EPIC)와 대조될 때 그 한계는 무엇인가? (제2장)

둘째, MRI(선교적, 관계적, 성육신적) 운영체제와 EPIC(체험적, 참여적, 이미지 중심적, 연결적) 인터페이스의 통합 모델은 신학적·실천적 측면에서 APC 패러다임의 한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이 되는가? 또한, 레너드 스윗의 이론이 지닌 문화 낙관주의나 신학적 피상성과 같은 잠재적 한계는 무엇이며, 일본 맥락에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가? (제3장)

셋째,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AICC)의 사례를 통해, MRI-EPIC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과정으로 구현하고 있는가? 특히, APC 패러다임의 극복 지점은 어디에서 확인되며, 이러한 실천이 포스트모던·다문화 일본 사회에 어떤

새로운 선교적 가능성과 동시에 도전 과제를 창출하고 있는가? (제4장)

넷째, 이상의 이론적 분석과 사례 연구에서 도출된 원리를 전통적인 단일문화 일본 교회 및 소형 도시, 고령화된 일본 교회가 APC에서 MRI-EPIC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단계적 접근과 차별화된 실천적 과제 및 로드맵은 무엇인가? (제5장)

#### D.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현장 중심의 질적 사례 연구를 결합한 통합적 방법론을 채택한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APC, MRI, EPIC 개념의 이론적 토대를 검토한다. 레너드 스윗의 주요 저작들(『Post-Modern Pilgrims』, 『So Beautiful』, 『I Am a Follower』 등)을 중심으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 앨런 허쉬(Alan Hirsch),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등의 선교신학 및 교회론과의 이론적 대화를 통해 MRI-EPIC 모델을 심화·발전시킨다. 또한 일본 교회사 및 일본 종교 문화에 관한 선행연구(가토 요이치, 물린스, 베네딕트 등)를 검토하여 APC 패러다임의 일본적 맥락을 분석한다.

둘째,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MRI-EPIC 모델의 현장 구현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사례 연구 대상은 2021년 일본 나고야에 설립된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AICC)로 단일 사례 연구(Single Case Study) 방법을 적용한다. 사례 선정 이유는 의도적으로 다문화 구성과 새로운 교회 모델을 탐색하는 실험적 성격을 지닌 점,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도 MRI-EPIC 요소를 관찰

가능하게 구현하고 있는 점에 있다. 자료 수집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 **참여관찰:** 사례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2021년 5월 개척초기 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AICC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찰을 해왔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한 집중 자료 수집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이 기간 동안 체계적인 참여관찰(주일예배 24회, 성경회 72회, 지역 활동 6회)을 실시하였다. 관찰의 초점은 (1) 예배 및 공동체 활동의 진행 방식에서의 APC/MRI-EPIC 요소의 발현, (2) 다문화 구성원 참여자 간 상호작용, (3) EPIC 요소의 구현 양상, (4) MRI 정체성의 표현 방식 등에 두었다.
- **심층 면접:** AICC의 공동 개척자 선교사 1명, 일반 교인 5명(일본인 성도(2명), 다문화 성도(중국인, 인도네시아인, 캄보디아인 각 1명)), 지역 사회 협력자(1명)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질문은 교회 선택 동기, 신앙 경험, 공동체에 대한 인식, APC/MRI-EPIC의 개념과 관련된 체험적 진술을 유도하도록 구성되었다. 면접은 녹취 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문서 자료:** AICC의 설립 취지문, 주보 등의 내부 문서와 소식지 SNS 게시물 등 외부 홍보 자료를 수집하여 공식적 메시지와 실천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관찰 일지, 면접 전사본, 문서)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의미 있는 패턴과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APC 극복 사례와 MRI-EPIC 구현 사례의 범주로 체계화하였다.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삼각측량(triangulation),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APC 패러다임의 극복 지점’, ‘MRI 운영체제의 구현 양상’, ‘EPIC 인터페이스의 적용 방식’, ‘다문화 공동체의 도전과 기회’ 등 주요 주제를 도출하여 사례를 해석하였다.

## E.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일본 교회 위기의 근원을 APC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역사적 형성 과정과 구조적 차원으로 심층 분석한다. APC의 세 가지 축, 유인적, 명제적, 식민적 요소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일본 교회사와 어떻게 맞물려 내향적 성장, 소통 실패, 정체성 혼란을 초래했는지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MRI 운영체제와 EPIC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MRI의 삼중 구조(선교적, 관계적, 성육신적)와 EPIC의 네 가지 채널(체험적, 참여적, 이미지 중심적, 연결적)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들의 통합 모델을 제시한다. MRI 각 요소의 신학적 근거를 성경신학과 선교신학과의 대화 속에서 강화하고, EPIC의 문화적 코드를 포스트모던 인식론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또한, 레너드 스윗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모델의 균형을 도모한다.

제4장에서는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AICC)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MRI-EPIC 모델의 현장 구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방법론을 상세히 기술하고, 예배, 소그룹, 지역 참여의 실제 사례를 통해 APC 극복 사례와 MRI-EPIC의 구현과 한계를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사례 연구 결과를 종합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일문화·고령화 일본 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일본 교회에 적용 가능한 단계적 실천 재설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패러다임 전환 과정의 예상 저항과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학문적 기여와 한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 II. 일본 교회 위기의 근원 진단: APC 패러다임의 역사와 한계

일본 개신교가 인구의 0.4% 미만에 머물며 지속적인 쇠퇴와 고령화, 신앙 승계 단절, 사회적 고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문화적 장벽, 선교 방법론의 부적절성, 일본인의 종교적 심성 등에 주목해 왔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종종 증상에 대한 치료에 그치거나, 일본 교회를 수동적 피해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장기간 일본 교회를 지배해온 특정한 운영체제(OS)에서 찾는다. 이 과거 지향적이고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교회 운영체제를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APC 패러다임으로 명명한다.<sup>11</sup>

APC 패러다임은 모더니즘 시대에 형성된 교회 운영의 근본적 가정들을 체계화하며, 유인적(Attractional), 명제적(Propositional), 식민적(Colonial) 접근법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본 교회의 역사적 형성과 현재의 위기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 분석 도구가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APC는 패러다임의 개념적 틀을 검토하고, 이 패러다임이 일본 교회사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며,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에서 APC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sup>10</sup> Mark R.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A Study of Indigenous Move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1-10, 25-40, 120-145, 180-195.

<sup>11</sup> Sweet, *Post-Modern Pilgrims*, 20-40, 120-140.

이를 통해 일본 교회 갱신의 출발점이 단순한 '방법 수정'이 아닌 '운영체제 재설정'에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 A. APC 패러다임의 세 가지 축: 개념적 이해

APC 패러다임은 근대적·모더니즘적 세계관 속에서 형성된 교회의 지배적 운영 모델이다. 각 축은 교회의 정체성, 소통 방식, 타문화 접근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드러낸다.

##### 1. 유인적(Attractional) 모델: '사람을 오게 하는 건물 중심' 모델

유인적 모델의 핵심은 '사람을 교회 건물로 불러모으는(COME)' 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는 것이다. 이 모델은 교회를 물리적 공간과 프로그램의 공급자로 위치짓고, 성공의 지표를 좌석 점유율(seating capacity)로 측정한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에너지와 자원은 점점 더 정교한 시설, 매력적인 프로그램, 유명 강사를 통한 '내부로의 초대'에 집중된다. 이러한 접근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 28:19)는 '보냄(sending capacity)'의 사명과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진다.<sup>12</sup> 유인적 교회는 사회를 '밖'(外: soto)으로, 교회를 '안'(内: uchi)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이는 일본 문화의 강한 '우치/소토'(内/外) 의식과 결합하여 교회를 점차 내향적이고 자기참조적인 공동체로, 더욱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로 변모시켰다. '세상'은 복음화의

<sup>12</sup> Ibid., 25-45.

또한 참조: Hirsch, *The Forgotten Ways*, 1-55, 52-55, 55-70, 82-90.

대상이 아닌, 교회의 경계 밖에 있는 위협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 명제적(Propositional) 모델: 신앙 전달의 소통 방식으로 이성과 교리를 강조  
 명제적 접근법은 진리를 주로 논리적·개념적 명제(proposition)의 체계로 이해하고, 신앙의 전달과 수용을 이성적 이해와 교리적 동의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는 인쇄문화(Gutenberg culture)와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적 영향 아래 발달한 소통 방식이다.<sup>13 14</sup>

이러한 맥락에서 설교는 주로 교리를 설명하고 논증하는 강의 형식을 취하며, 예배는 신학적 정확성에 치중하게 된다. 비록 신학적 정통성은 필수적이지만, 포스트모던 세대가 추구하는 체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이미지 중심적(Image-rich), 연결적(Connective)의 문화적 코드(이하 EPIC)와는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sup>15</sup> 명제적 소통은 마음과 감성, 관계와 이야기를 통한 진리 체험을 간과할 위험이 있으며, 복음을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이야기(living story)가 아니라 지적 체계로 축소시킬 수 있다.

3. 식민적(Colonial) 모델: 문화적 민감성 부재한 선교 태도의 역사적 잔재

식민적 태도는 복음의 전달자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 신학적 프레임워크, 교회 운영 방식을 보편적이고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교지의 문화를 단순히

---

<sup>13</sup> Sweet, *Post-Modern Pilgrims*, 40-55.

<sup>14</sup>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262-270, 294-301, 350-353.

<sup>15</sup> Sweet, *Post-Modern Pilgrims*, 40-55, 60-75.

또한 참조: Hirsch, *The Forgotten Ways*, 89-110; Bosch, *Transforming Mission*, 262-270.

복음의 ‘포장지’ 정도로 취급하거나, 심지어 변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접근법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서구 선교사들이 비서구 지역에 진출할 때 흔히 보였던 태도로,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 이후 대량으로 유입된 서구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활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sup>16</sup> 그들은 종종 일본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 사고방식, 종교성(신도, 불교 등)을 ‘미신’ 이나 ‘우상숭배’ 로 단정하며 외부로부터의 변혁을 추구했다. 이러한 태도는 복음이 ‘문화 속에 성육신(Incarnational)’ 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며, 일본인들에게 기독교를 ‘외래 종교’ , 심지어 ‘문화적 침략’ 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sup>17</sup>

## B. APC 패러다임이 일본 교회에 미친 영향

APC 패러다임의 삼중주는 일본 교회의 독특한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 1. 유인적 모델과 전후 일본 교회 개척 방식의 연관성

일본 개신교는 1950-60년대 미국식 교회 성장 모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전후(戰後) 일본 개신교의 교회 개척은 주로 서구 선교사들의 주도 아래

---

<sup>16</sup> Bosch, *Transforming Mission*, 294-313.

또한 참조: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25-40;

A. Hamish Ion, *The Cross and the Rising Sun*, vol. 1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90), 45-70.

<sup>17</sup> 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9), 136-150, 189-192.

이루어졌다. 이들은 본국에서 효과적이었던 교회 성장 모델을 일본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 핵심에는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초대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유인적 가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sup>18</sup>

이는 일본의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 교회를 하나의 '시설' 또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1970-80년대에 번역 소개된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교회 성장 이론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일본 사회의 현실과 여러 지점에서 충돌했다. 첫째, 일본의 도시 공간은 극도로 협소하고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어, 교회 건물이 지역 사회에서 뚜렷한 랜드마크로 기능하기 어려웠다.<sup>20</sup> 둘째, 일본인의 주거 문화는 폐쇄성과 프라이버시 중시로 특징지어지며, 낯선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에 심리적 장벽이 높았다. 셋째, 유인적 모델은 교회의 존재를 ‘그곳에 가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대다수 일본인에게 교회는 일상적 생활 반경 밖의 ‘낯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sup>21</sup>

---

<sup>18</sup> A. Hamish Ion, *The Cross and the Rising Sun*, vol. 2 (Waterloo, ON: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93), 10-35, 60-75.

또한 참조: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120-145; Bosch, *Transforming Mission*, 349-357;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136-150.

<sup>19</sup>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0), 7-30, 75-100.

또한 참조: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120-145; Hiroshi Shibuya, *The Japanese and Christianity* (London: SPCK, 1994), 85-110.

<sup>20</sup> Reader, *Religion in Contemporary Japan*, 120-135.

또한 참조: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145-165.

<sup>21</sup> 會田雄次, 『일본인의 의식구조』, 최명순 역, 서울: 자유문화사, 1978, 35-60.

또한 참조: Joy Hendry, *Understanding Japanese Society*, 3rd ed. (London: Routledge, 2003), 35-55; Takie Sugiyama Lebra, *Japanese Patterns of Behavio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결과적으로 유인적 모델은 일본 교회를 점점 더 사회로부터 고립된 ‘문화적 섬’으로 만들었다. 교회 활동의 초점이 기존 신자들을 유지하고 주변의 소수 관심자들을 ‘끌어오는’ 데 맞춰지면서, 대다수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공적인’ 영역(직장, 학교,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나감’의 실천은 약화되었다.<sup>22</sup> 이는 일본 사회의 강한 ‘동조 압력’과 ‘눈에 띄지 않기’의 문화 속에서 더욱 부각된다. 교회는 낯선 외래 집단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고립은 교회의 평균 교인 수를 15명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목회자 없는 ‘무목교회’를 1,000곳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sup>23</sup>

## 2. 명제적 신앙 전달과 일본 지식인 중심 선교의 고착화

일본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메이지 시대(1868-1912)는 서구적 근대화와 합리주의가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였다. 초기 선교사들과 일본인 개신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서구 문명과 과학 정신의 정수로 제시하려 했다. 이 시기에 개신교는 주로 일본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서구의 근대 문물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엘리트 집단으로, 기독교를 서구 문명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학교육은 강의식, 논증적,

---

1976), 25-45; Reader, *Religion in Contemporary Japan*, 120-135;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145-165.

<sup>22</sup>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145-165.

또한 참조: Reader, *Religion in Contemporary Japan*, 150-165; Shibuya, *The Japanese and Christianity*, 150-165;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189-192.

<sup>23</sup> Shibuya, *The Japanese and Christianity*, 150-165.

또한 참조: 日本基督教団, 『日本基督教団年鑑 2023年版』, Tokyo: 日本基督教団出版局); 일본복음선교회(JEM), 『제8회 일본선교 아카데미 자료집』, 서울: JEM, 2023.

체계적 교리 전달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설교는 주로 교리를 설명하고 논증하는 강의 형식을 취하며, 예배는 신학적 정확성에 치중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 기독교는 초기부터 지식인 중심, 교리 중심, 학문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sup>24</sup>

명제적 신앙 전달 방식은 일본 신학교육에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신학교들은 주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나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을 수입하여 강의식으로 가르쳤다. 학생들은 교리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능력을 평가받았다. 이러한 교육은 목회자들에게 강력한 신학적 무장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추상적 교리와 일상적 삶의 경험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sup>25</sup>

일본 문화는 전통적으로 감정 중심, 간접 소통, 집단 조화를 중시한다. 논리적 논증과 명제적 진술보다는 분위기와 맥락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장소(場)’ 중심의 소통이 발달해 왔다.<sup>26</sup> 이러한 문화적 토양에서 명제적 설교와 교리 문답식 교육은 깊은 공명을 얻기 어려웠다. 일본인들은 교회에서 들은 진리가 삶의 구체적 경험과 연결되지 않을 때, 이를 ‘머리로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지식으로 남겨두게 되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포스트모던

<sup>24</sup> 택정언, 『일본기독교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45-80.

또한 참조: Ion, *The Cross and the Rising Sun*, vol. 1, 85-120.

<sup>25</sup> 택정언, 『일본기독교사』, 180-210.

또한 참조: Ion, *The Cross and the Rising Sun*, vol. 1, 120-150; Shibuya, *The Japanese and Christianity*, 70-95.

<sup>26</sup> 竹内芳郎, 『日本文化の構造』. 東京: 岩波書店, 1984, 45-70.

또한 참조: Ruth Benedict, 『菊と刀(日本文化型)』, 長谷松治 역, 東京: 現代教養文庫, 1975, 45-70.

일본인들과의 단절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이 세대는 이성적 논증보다는 체험적(Experiential) 경험을, 일방적 강의보다는 참여적(Participatory) 강의를, 텍스트 중심 설명보다는 이미지 중심적(Image-rich)과 스토리를, 개인주의보다는 연결되는(Connective) 공동체를 갈망한다.<sup>27</sup> 그러나 APC 교회는 여전히 인쇄문화 시대의 합리적·선형적·개인적 인터페이스를 고수하며, 포스트모던 세대가 사용하는 ‘문화적 언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명제적 소통은 마음과 감성, 관계와 이야기를 통한 진리 체험을 간과함으로써, 일본인 젊은 세대의 영적 갈망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회는 젊은 세대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딱딱한’ 곳으로 인식되며, 신앙의 대물림(승계)이 사실상 단절되고 있다.<sup>28</sup>

### 3. 식민적 선교 태도의 장기적 영향

서구 선교사들의 일본 접근 방식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식민적 태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들은 일본 문화를 복음과 대립되거나 복음에 의해 교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일본의 전통적 가치와 관습은 ‘이교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기독교로의 개종은 이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했다.<sup>29</sup>

<sup>27</sup> 内田樹, 『若者と日本文化』. 東京: 講談社, 2008, 55-80.

또한 참조: 真鍋一史, 『デジタルネイティブの時代』. 東京: NHK出版, 2015, 25-50.

<sup>28</sup>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180-195.

또한 참조: Shibuya, *The Japanese and Christianity*, 110-130.

<sup>29</sup>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25-40.

또한 참조: Reader, *Religion in Contemporary Japan*, 120-135.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서구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문화적·신학적 틀을 보편적 기준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종종 서구적 교회 형태, 서양 음악 중심의 예배, 서구 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접근은 기독교가 일본의 언어, 사고방식, 감수성 속에서 토착화되는 ‘성육신적 과정’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기독교는 일본인들에게 ‘외래 종교’라는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많은 일본인들은 기독교를 서양인의 종교, 일본인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낯선 체계로 인식한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선교 초기부터 형성된 역사적 프레임의 결과이다.<sup>30</sup> 일본인의 집단 정체성과 조화 문화는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가치 체계에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게 만들었고, 기독교는 이러한 문화적 방어막을 넘지 못했다.<sup>31</sup>

일본 문화의 핵심 코드인 ‘화(和) 의식’, ‘집단 귀속 의식’, ‘수치 문화’는 APC 패러다임과 여러 지점에서 충돌한다.<sup>32</sup>

첫째, 화(和) 의식은 대립과 논쟁을 극도로 회피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독교의 회개와 죄의 고백, 독특성 주장은 이러한 문화적 코드에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둘째, 강한 집단 귀속 의식은 가족이나 직장 공동체와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진 교회에의 소속을 어렵게 만든다.

---

<sup>30</sup> Shibuya, *The Japanese and Christianity*, 45-70.

또한 참조: 택정인, 『일본기독교사』, 60-85.

<sup>31</sup> Ruth Benedict, 『菊と刀』, 45-70.

<sup>32</sup> 會田雄次, 『일본인의 의식구조』, 35-60.

셋째, 신 앞에서의 ‘죄 의식’ 보다 인간 관계에서의 ‘수치’ 를 중시하는 문화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적 전제와 소통하기 어렵게 만든다.<sup>33</sup>

결국, 교회는 자신이 처한 ‘우편번호’ (구체적인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 코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성육신적 접근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과 방법론을 반복 실행하는 데 머무르게 되었다.

일본 문화 코드와 그 특성	APC 패러다임과의 충돌 지점	충돌 결과 및 교회에 미친 영향
<b>화(和) 의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단 내 조화와 일치가 최고 가치</li> <li>대립과 논쟁, 직접적 갈등 표현을 극도로 회피</li> <li>경계를 흐리는 모호한 소통 선호</li> </ul>	<b>명제적(Propositional) 소통과 충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확한 진리 주장과 교리적 논증은 '화'를 깨는 위협으로 인식됨</li> <li>회개와 죄 고백은 개인의 내면 문제를 공론화하여 집단의 조화를 해칠 위험 요소로 간주됨</li> <li>'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기독교 윤리는 일본적 모호성과 충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인들이 신앙적 확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됨</li> <li>교회 내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끓여가는 경향</li> <li>복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함</li> </ul>
<b>집단 귀속 의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보다 집단(가족, 직장,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우선</li> <li>'우치(안 内)'와 '소토(밖 外)'의 경계가 명확함</li> <li>소속 집단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강력한 동조 압력이 작용</li> </ul>	<b>유인적(Attractional) 모델 및 식민적(Colonial) 접근과 충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집단(교회)에의 소속은 기존 집단(가족, 직장)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li> <li>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소토'에서 '우치'로의 이동을 의미하나, 그 경계를 넘는 데 심리적 장벽이 높음</li> <li>기존 집단과 다른 기독교 가치 체계는 '이방인'으로 낙인찍힐 위험을 초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회 출석 자체가 사회적 '일탈'로 인식되어 진입 장벽이 높아짐</li> <li>세례 받은 교인들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움</li> <li>교회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문화적 섬'으로 남게 됨</li> </ul>
<b>수치(恥) 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죄 의식'보다 '수치심'이 행동의 주요 통제 mechanism</li> <li>타인의 시선과 평가를</li> </ul>	<b>명제적(Propositional) 소통 및 식민적(Colonial) 접근과 충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독교의 '죄' 개념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죄 의식보다 체면 유지에 가로막힘</li> <li>교인들 간의 관계가</li> </ul>

<sup>33</sup> Ruth Benedict, 『菊と刀』, 45-70.

또한 참조: Lebra, *Japanese Patterns of Behavior*, 25-45.

의식하며 '체면' 유지를 중시 • 잘못이 드러나 집단의 조화를 깨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함	하나님 앞에서의 수직적 관계이나, 일본의 '수치'는 인간 관계에서의 수평적 관계에 기반함 • 공개적인 죄 고백이나 회개 간증은 개인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집단 내 체면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음 • 서구 선교사들의 문화적 우월감과 직접적 비판은 일본인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반발과 거부감을 초래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 • 기독교가 일본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낯선 종교'로 인식됨
--	--	---

(표 1) 일본 문화 핵심 코드와 APC 패러다임의 충돌 지점

### C. 종합 평가: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에서 APC 패러다임의 붕괴

APC 패러다임은 본질적으로 모더니즘(근대)의 산물이다.<sup>34</sup> 이는 안정적이고 동질적이며, 이성과 진보를 신뢰하던 시대의 교회 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심층적으로 포스트모던 사회로 진입했다.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며, APC 패러다임의 전제들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

#### 1.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의 특징

첫째, 거대 서사(grand narrative)의 붕괴와 가치관의 다원화이다. 국가, 종교, 과학 등이 제공하는 포괄적 진리 체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 일본에서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공허감'은 만연한 현상이다. 가족 구조, 직업 관념, 가치관이 빠르게 다원화되고 있으며,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다문화

<sup>34</sup> Andrew F. Walls,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53-70.

또한 참조: Bosch, *Transforming Mission*, 262-280.

현실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둘째, 경험과 관계 중심의 가치 추구이다. 소비에 있어서 '소유'보다 '경험'을, 인간관계에서 '형식'보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는 포스트모던 세대가 추상적 명제보다 구체적 경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개인적 정체성보다 관계적 연결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의 보편화와 TGIF 문화의 일상화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의사소통 방식과 인간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에게 있어, TGIF(Twitter, Google, Instagram, Facebook) 로 대표되는 디지털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습득 도구를 넘어 관계 형성과 정체성 구축의 핵심 장(場)이 되었다. 이들은 일상적 소통, 정보 검색, 사회적 인정, 공동체 경험을 모두 이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수행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디지털 문화가 단순히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 방식 자체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connected)'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의미를 찾는다. 셰리 터클(Sherry Turkle)이 지적했듯, 이들은 '함께 고립(alone together)'되는 역설 속에서도 진정한 연결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3장에서 논의될 EPIC 모델의 연결적(Connective) 요소가 단순한 소통 방식을 넘어, 포스트모던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2. APC 패러다임의 전면적 부적합성

이러한 맥락에서 APC 패러다임의 세 축 모두 그 효용성을 상실했다. 유인적 모델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사회에서, '오라'는 초대는 무의미하다. 젊은

세대는 조직적 종교에 대한 반감, 시간 소모에 대한 민감성, 개인 시간의 소중함으로 인해 교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한다. 명제적 소통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방식으로 '듣지' 않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인식론은 절대적 진리의 객관적 전수를 의심하며, 진리는 관계와 맥락 속에서 공동 구성되는 것이라 본다. 식민적 태도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접근법이다. 글로벌화 시대에 문화적 우월주의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일본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은 역사상 최고조에 있다. 문화적 민감성 없이 전해진 복음은 '외래 종교'라는 딱지를 때기 어렵다.

### 3. 통계적 침체의 패러다임적 해석

일본 교회가 직면한 통계적 침체(0.4% 복음화율)와 구조적 위기(초고령화, 무목교회)는 단순한 방법론의 실패나 문화적 장벽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정신(Zeitgeist)과 조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운영체제(OS)의 실패를 증명하는 표징이다.<sup>35</sup> APC 패러다임 아래서 일본 교회는 사회의 변화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결'이 인간 존재의 핵심 조건이 되었음에도, 교회는 여전히 인쇄문화 시대의 선형적·개인적 소통 방식에 머물러 있다.<sup>36</sup>

따라서 일본 교회의 지속 가능한 갱신을 위한 첫걸음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sup>35</sup>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349-389.

<sup>36</sup>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 (Oxford: Blackwell, 2010), 387-412.

또한 참조: Sherry Turkle, *Reclaiming Conversation: The Power of Talk in a Digital Age* (New York: Penguin, 2015), 25-50; Barry Wellman and Lee Rainie, *Networked: The New Social Operating System* (Cambridge, MA: MIT Press, 2012), 6-30.

전략을 도입하는 ‘인터페이스(UI) 업데이트’가 아니라, APC라는 한계적인 운영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정(Rebooting)하는 것이다.<sup>37</sup> 이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소통 방식, 타문화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라는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OS를 설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OS는 단순히 APC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적 현실을 동시에 진지하게 고려한 통합적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다음 장에서 논의될 MRI 운영체제(Missional, Relational, Incarnational)와 EPIC 인터페이스(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rich, Connective)의 통합 모델이 제안될 수 있다. 특히 EPIC의 연결적(Connective) 요소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존재 방식을 반영한 인터페이스로서, 포스트모던 세대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관계적 연결성을 교회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모델은 일본 교회가 고립과 쇠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다시 선교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와 실천적 프레임을 제공할 것이다.

---

<sup>37</sup> Leonard Sweet, *The Church of the Perfect Storm*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20-45.  
또한 참조: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Innovation and Mission for the 21st-Century Chur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15-40.

### Ⅲ. 대안 패러다임의 제안: MRI 운영체제와 EPIC 인터페이스

일본 교회의 위기 진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APC 패러다임은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과거의 운영체제(OS)이다. 단순한 방법론의 수정이나 프로그램의 추가로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회의 운영체제 자체를 재설정하고,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환경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본 장에서는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이 제안하는 MRI 운영체제(Missional, Relational, Incarnational)와 EPIC 인터페이스(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rich, Connective)를 소개하고, 이 둘이 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본 교회의 재설계에 어떠한 신학적 토대와 실천적 가능성을 제공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sup>38</sup> 특히 본 장에서는 스위트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성경신학 및 선교신학의 다양한 흐름과 대화시키며, 동시에 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모델의 균형을 도모할 것이다.

#### A.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운영체제(OS) 재설정과 인터페이스(UI) 업데이트

컴퓨터 시스템에 비유하자면, APC는 시대에 뒤떨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낡은

---

<sup>38</sup> Leonard Sweet, *SoulTsunami: Sink or Swim in New Millennium Culture* (Grand Rapids: Zondervan, 1999), 25-50.

운영체제(OS)다. 아무리 새로운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행사)을 설치해도 근본적인 성능 한계와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하고 강력한 새로운 OS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MRI 운영체제다. 이 OS는 복음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핵심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문화적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작동해야 할 기초 플랫폼이다.<sup>39</sup>

그러나 훌륭한 OS만으로는 최종 사용자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시스템의 능력을 활용하려면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필요하다. 특히 TGIF(Twitter<sup>40</sup>, Google, Instagram, Facebook) 문화와 GRAIN(Genetics, Robotics, AI, Information-tech, Nanotech) 세상에서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일본인들은 특정한 문화적 인터페이스에 익숙하다.<sup>41</sup> 그들이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내용(OS)을 전달하기 위한 채널이 바로 EPIC 인터페이스다.<sup>42</sup> 따라서 일본 교회의 재탄생은 건강한 MRI OS의 설치와, 동시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EPIC UI의 업데이트라는 이중과제를 요구한다.

## B. 새로운 운영체제: MRI의 삼중 구조

MRI 운영체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본질을 정의하는 세 가지 불변의 핵심 원리로 구성된다. 이는 의학적 MRI가 인체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듯, 교회의

---

<sup>39</sup> Leonard Sweet, *AquaChurch: Essential Leadership Arts for Piloting Your Church in Today's Fluid Culture* (Loveland, CO: Group, 1999), 15-40.

<sup>40</sup> 현재 Twitter는 일론 머스크에 의해 그 명칭이 X로 변경되었다.

<sup>41</sup> Leonard Sweet, *The Church of the Perfect Storm*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30-55, 60-85.

<sup>42</sup> Sweet, *SoulTsunami*, 125-150.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하는 신학적 표준이 된다.<sup>43</sup>

### 1. 선교적(Missional) 정체성: ‘오라’에서 ‘가라’로

선교적 정체성은 교회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참하는 공동체임을 선언한다.<sup>44</sup> 이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선교신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칼 바르트(Karl Barth)의 기독교 강요, 칼 하텐(Karl Harten)의 선교 이해,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빌링겐 선교대회(1952)를 거치며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점차 정립되었다.<sup>45</sup> 이는 선교가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받아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이 전환을 "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가지신다"는 역설로 요약한다.<sup>46</sup>

선교적(Missional) 정체성은 APC의 유인적(Attractional) 모델이 가정한 ‘오라(COME)’의 지향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마 28:19-20)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πορευθεῖν τ ε ς)”이다. 교회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 (a sent people)로서 정체화된다. 건강한 교회의 성과 지표는 좌석 점유율(seating capacity)이 아니라 파송 능력(sending

<sup>43</sup> Ibid., 25-50.

<sup>44</sup> 加藤陽一, 「ポストモダン時代における日本プロテスタント教会の伝道の課題」, 『日本神学』 58 (2020): 1-20.

<sup>45</sup> Bosch, *Transforming Mission*, 389-393.

또한 참조: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I/1 (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40), 662-678; Karl Hartenstein, “Die Mission als theologisches Problem,” in *Theologische Probleme der Mission* (1934), 34-36;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The Missionary Obligation of the Church* (Willingen, 1952), 189-205.

<sup>46</sup> Bosch, *Transforming Mission*, 390.

capacity)이다.<sup>47</sup> 이는 물리적인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공간(직장, 학교, 이웃)으로 구체적으로 파송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통치를 증언하는 모든 평신도의 삶을 포함한다. 선교적 교회는 문턱을 낮추어 사람을 끌어오는 데 주력하기보다, 문을 활짝 열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데 에너지를 투자한다.

## 2. 관계적(Relational) 공동체: ‘믿음의 동의’에서 ‘제자 됨의 관계’로

관계적 공동체는 복음의 내용과 방법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임을 강조한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성(페리코레시스,  $\pi \epsilon \rho \iota \chi \acute{\omega} \rho \eta \sigma \iota \varsigma$ )에 신학적 기초를 둔다.<sup>48</sup>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서로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 존재하며, 그 관계 자체가 존재 방식이다. 교회는 이러한 삼위일체적 관계성의 형상으로서, 서로 깊이 연결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APC의 명제적(Propositional) 접근이 진리를 ‘무엇(what)’에 대한 이성적 동의로 축소할 위험이 있다면, 관계적(Relational) 접근은 진리가 ‘누구(Who)’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해석되며, 성장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성도의 교제』(Sanctorum Communio)에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화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정의하며, 교회의 본질이 관계적 사귄(Koinonia)에 있음을 천명했다.<sup>49</sup> 또한 『나를 따르라』(Nachfolge)에

<sup>47</sup> Rick Warren의 말로 알려진 “교회의 성공은 좌석 점유율(seating capacity)이 아니라 파송 능력(sending capacity)에 달려 있다”는 표현은 Neil Cole에 의해 인용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또한 참조: Neil Cole, *Organic Church: Growing Faith Where Life Happen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5).

<sup>48</sup> Jürgen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72-175.

<sup>49</sup> 디트리히 본회퍼, 『성도의 교제』(Sanctorum Communio), 김재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21-122.

서 그는 제자도를 "값싼 은혜"가 아닌 "값진 은혜"에의 부름으로 제시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한다.<sup>50</sup>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 (마 28:19)는 관계적 지향에 있었다. 그의 치유 사역에서도 먼저 “아들아” (막 2:5)라는 관계 회복의 선언이 물리적 치유에 앞섰다.<sup>51</sup> 교회는 단순히 동일한 신조를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세워가는 제자 공동체이다. 제자도는 정보의 전수가 아닌, 삶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장기적이고 투명한 관계의 과정이다.

### 3.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 ‘민족 국가’에서 ‘문화/우편번호’로

성육신적 접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 갈릴리라는 특정한 문화, 언어, 시간, 공간에 들어오셨듯이, 교회도 복음을 특정한 문화적·지리적 context에 들어가 살아내야 함을 의미한다.<sup>52</sup> 요한복음의 서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 1:14)라는 선언으로 성육신의 신학적 의미를 압축한다. 여기서 '거하시다'(ἐσκήνωσεν)는 '장막을 치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구체적 인간 역사 속에 임재하셨음을 상징한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복음은 결코 문화를 초월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항상 특정 문화의 형

<sup>50</sup> 디트리히 본회퍼, 『나를 따르라』, 김재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47-60.

<sup>51</sup> Leonard Sweet, *I Am a Follower: The Way, Truth, and Life of Following Jesus* (Nashville: Thomas Nelson, 2012), 25-32, 55-60.

<sup>52</sup> Darrell L. Guder et al.,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99-106, 131-135.

식을 입고 전달된다고 주장한다.<sup>53</sup> 따라서 선교는 복음을 문화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복음이 특정 문화 속에서 '토착화'되는 과정을 돕는 것이다. 이는 APC의 식민적(Colonial) 태도와 정반대다. 식민적 접근은 자신의 문화를 보편적 기준으로 삼고 타문화를 변혁시키려 했다면,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은 먼저 그 문화에 깊이 들어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 문화의 언어와 상징, 필요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표현한다.

특히 “모든 민족(ἔθνη, ethne)에게” (마 28:19)라는 말씀은 정치적 ‘국가(nation-state)’ 보다는 문화적 ‘민족’ 또는 ‘사람 그룹’에의 성육신을 지시한다.<sup>54</sup> 스윗은 이를 매우 구체적인 수준인 ‘우편번호 선교’로 적용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편번호’를 위해 우신 것과 같이(눅 19:41), 각 교회는 자신이 위치한 구체적인 지역(우편번호)의 낮과 밤의 문화, 그곳의 기쁨과 고통을 깊이 사랑하고 위하며, 그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sup>55</sup> 이는 복음을 추상적 진리에서 구체적인 삶의 맥락으로 끌어내리는 실천이다.

### C. 새로운 문화적 인터페이스: EPIC의 네 가지 채널

MRI라는 건강한 OS를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문화적 언어, 즉 EPIC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EPIC은 디지털·

<sup>53</sup>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3-4, 144-149.

<sup>54</sup> Bosch, *Transforming Mission*, 57-58.

<sup>55</sup> Leonard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Colorado Springs: WaterBrook, 2007), 33-38.

또한 참조: Leonard Sweet, *So Beautiful: Divine Design for Life and the Church*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2009), 115-122.

포스트모던 문화의 지배적 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네 가지 특성이다.<sup>56</sup> 이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스트모던 인식론과 디지털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는 『포스트모던의 조건』에서 포스트모던을 "거대 서사(grand récit)에 대한 불신"으로 정의한다.<sup>57</sup> 이는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이성에 대한 신뢰가 해체되고, 다양성과 차이, 국지적 담론이 중시되는 시대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지형에서 교회의 전통적 명제적 소통 방식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한다. 또한 셰리 터클(Sherry Turkle)은 디지털 시대의 인간 관계 변화를 추적하며, 사람들이 점점 더 '함께 고립'(alone together)되는 현상을 지적한다.<sup>58</sup> 이는 진정한 연결(Connection)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그 실현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 1. 체험적(Experiential): ‘이해’를 넘어선 ‘맛봄’의 경험 설계

포스트모던 세대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몰입감 있고 감각을 자극하는 전반적 경험(Experience)을 갈망한다. 이는 시편 기자의 “맛보아 알라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시 34:8)이라는 호소와 맞닿아 있다.<sup>59</sup>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닌, 인격적 만남과 체험적 교제로 제시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sup>56</sup> Sweet, *Post-Modern Pilgrims*, 30-38, 47-55.

<sup>57</sup>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xxiv.

<sup>58</sup> Sherry Turkle,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2011), 1-18.

<sup>59</sup>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13-25.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고 외치며, '앎'이 관계적 헌신과 체험적 동행을 포함함을 보여준다.

교회는 예배, 소그룹, 선교 활동을 설계할 때,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임재, 평안을 '이해' 하는 것을 넘어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감각적 요소(음악, 분위기, 공간), 실천적 참여(기도, 섬김), 삶의 이야기 공유 등을 통한 총체적 경험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의 종교 문화는 의례와 체험 중심의 전통이 강하므로, 기독교 예배에서도 이러한 감각적·체험적 요소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 2. 참여적(Participatory): 수동적 청중에서 적극적 공동 창작자로

인쇄문화가 일방적 강의(performance)를 중시했다면, 디지털 문화는 상호작용(interaction)과 참여(Participation)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대 아래의 수동적 관객이 아니라, 공동 창작자(co-creator)가 되고자 한다.<sup>60</sup> 예수님의 교수법도 대화와 질문, 비유를 통한 청중의 상상력 참여를 이끌어냈다. 비유는 청중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초대하는 열린 텍스트였다.

따라서 교회는 설교를 대화식으로, 예배를 참여적 리더십으로, 공동체 삶을 모든 구성원이 은사를 발휘하는 협업의 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각 지체가 고유한 은사로 공동체 건설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참여적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각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유기적 유기체로 기능한다.

<sup>60</sup> Sweet, *Post-Modern Pilgrims*, 38-45.

### 3. 이미지 중심적(Image-rich): 언어적 논리를 넘은 비주얼 스토리텔링

포스트모던 세대는 텍스트 중심의 선형적 논증보다는 이미지, 상징, 비유, 스토리를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W.J.T. 미첼(Mitchell)은 현대 문화를 '그림적 전환'(pictorial turn)의 시대로 규정하며, 이미지가 텍스트를 대체하는 주된 소통 수단이 되었음을 지적한다.<sup>61</sup> 이러한 시각 문화의 부상에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한다.

예수님 역시 “천국은… 비교하자면” (마 13장 등)으로 시작하는 이미지 풍부한 비유를 주된 교수 도구로 사용하셨다.<sup>62</sup>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등은 청중의 일상적 경험 속의 이미지를 통해 천국의 신비를 전달했다. 교회는 단어를 주해(exegete)하는 것에서 이미지와 은유를 ‘주해’ 하는 법을 동시에 배워야 한다.<sup>63</sup> 시각적 자료(영상, 아트), 강력한 내러티브(스토리텔링), 은유적 언어의 사용은 복음의 진리를 더 깊고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다.

### 4. 연결적(Connective): 개교회주의를 넘은 네트워크형 관계 형성

현대 사회에서 연결성(Connectivity)은 단순한 기술적 현상을 넘어 사회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이러한 변화를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 개념으로 이론화한다. 그에 따르면, 정보시대의 지배적 기능과 과정은 점점 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sup>61</sup> W. J. T. Mitchell, *Picture Theory: Essays on Verbal and Visual Represent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1-34.

<sup>62</sup> Craig L. Blomberg, *Interpreting the Parables*, 2nd e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2), 31-45.

<sup>63</sup> Kenneth E. Bailey,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 Cultural Studies in the Gospels*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8), 279-300.

조직되며,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형태(morphology)를 구성한다.<sup>64</sup> 네트워크는 상호 연결된 노드(node)들의 집합으로, 노드 간의 거리는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0에 가까워지지만, 네트워크 외부의 지점과는 무한대의 거리를 갖는 이분법적 논리를 특징으로 한다.<sup>65</sup> 이러한 네트워크의 '포함/배제(inclusion/exclusion)' 논리는 현대인에게 '연결되어 있음'이 곧 '존재함'의 의미로 경험되게 만든다.<sup>66</sup>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연결성의 확대가 반드시 인간 관계의 진정한 심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셰리 터클(Sherry Turkle)은 『함께 고립(Alone Together)』에서 역설적 현상을 지적한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기술적 연결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는 더 알아지고 있다는 것이다.<sup>67</sup>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술에 의존하며, 결과적으로 '함께 있지만 고립된(connected but alone)' 상태에 빠진다.<sup>68</sup> 터클은 이를 "우리는 기술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서로에게는 더 적은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통찰로 요약한다.<sup>69</sup> 이는 현대인의 깊은 영적·관계적 갈망이 기술적 연결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EPIC의 연결적(Connective) 요소가 교회에 제시하는 과제는 분명하다. 교회는 단순한 기술적 연결망 이상의 진정한 관계적 공동체(authentic relational community)를 제공해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이것을 '프론트

---

<sup>64</sup>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469-476.

<sup>65</sup> Ibid.

<sup>66</sup> Ibid.

<sup>67</sup> Turkle, *Alone Together*, 222.

<sup>68</sup> Ibid., 153-180.

<sup>69</sup> Ibid., 1-18.

포치(front porch)'의 비유로 설명한다.<sup>70</sup> 현대 도시의 울타리 친 뒷마당과 달리, 전통적 가정의 앞쪽 현관은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었다. 스윗은 스타벅스가 커피숍에 소파와 테이블을 배치하여 '우리가 당신의 프론트 포치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분석하며, 교회도 이러한 연결의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71</sup> 즉, 교회는 사람들이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관계적 네트워크의 허브'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AICC의 사례는 이러한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소통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떨어진 교인들(특히 제일 외국인 교인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더 나아가 청년들을 위한 월 1회 외부 활동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확인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망을 강화하는 영적 순례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기술적 연결'을 넘어, 카스텔이 말한 '네트워크 사회'의 연결 논리와 터클이 비판한 '고립된 연결'을 넘어서는 대안적 공동체 모델을 제시한다.

결국, 연결적(Connective) 요소의 핵심은 '관계가 곧 메시지'라는 통찰에 있다.<sup>72</sup> 포스트모던 세대는 추상적 진리의 명제적 전달보다, 관계 속에서 진리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공동체를 갈망한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본질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네트워크(living network)'로 재탄

---

<sup>70</sup> Leonard Sweet, *From Tablet to Table: Where Community Is Found and Identity Is Formed* (Colorado Springs: NavPress, 2014), 37-45.

<sup>71</sup>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30-35.

<sup>72</sup> Leonard Sweet, *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s Already There*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2010), 48-50.

생활 때, 현대인의 깊은 관계적 갈망에 응답할 수 있다.<sup>73</sup> 이는 MRI 운영체제의 관계적(Relational) 소통이 EPIC 인터페이스를 통해 문화적으로 구현되는 핵심 지점이다.

#### D. Leonard Sweet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MRI-EPIC 모델은 포스트모던 시대 교회의 갱신을 위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지점들도 존재한다.

첫째, EPIC의 문화 낙관주의 위험이다. 스위트의 이론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교회 소통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포스트모던 문화 자체에 내재된 소비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의 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sup>74</sup> 체험과 이미지 중심의 소통이 자칫 복음을 하나의 소비재로 전락시키거나, 진리의 객관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sup>75</sup> 따라서 교회는 문화와의 소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문화를 변혁하는 예언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긴장 속에 존재한다.

둘째, 신학적 깊이 약화 가능성이다. 참여와 체험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교리와 전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다.<sup>76</sup> 기독교 신앙은 체험만으로 구

---

<sup>73</sup> Sweet, *So Beautiful*, 25-35.

<sup>74</sup> William A. Dyrness, *Reformed Theology and Visual Culture: The Protestant Imagination from Calvin to Edwar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85-110.

<sup>75</sup> Ibid.

<sup>76</sup> David F. Wells,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3), 95-130.

성되지 않으며, 사도적 전통에 뿌리내린 신앙 고백과 교리적 진술을 핵심으로 한다. EPIC 인터페이스가 MRI 운영체제의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로 기능해야 함에도, 인터페이스 자체가 내용을 대체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MRI-EPIC 모델은 신학적 교육과 성찰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MRI의 구조 개혁 한계이다. MRI는 주로 교회의 정체성과 태도의 변화를 강조하지만, 실제 교회 구조(재정, 조직, 교단 체계)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sup>77</sup> 선교적 정체성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유인적 구조(건물 중심 예산, 목회자 중심 의사 결정)를 유지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은 의식의 변화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구조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이는 5장의 로드맵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MRI-EPIC 모델을 적용할 때 단순한 방법론적 차용을 넘어, 신학적 성찰과 문화적 비판을 지속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다음 장의 사례 연구에서는 AICC가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하려 시도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 E. 통합 모델로서의 MRI-EPIC: 건강한 OS 위에 구축된 효과적인 UI

MRI와 EPIC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의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MRI는 ‘무엇을(What)’ 전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본질(OS)이라면, EPIC은 ‘어떻게(How)’ 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방법(UI)이다.<sup>78</sup> EPIC은 강

<sup>77</sup> Darrell L. Guder,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1-18.

<sup>78</sup> Sweet, *Postmodern Pilgrims*, 30-45.

력한 문화적 인터페이스이지만,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 이 도구는 선한 내용(MRI OS)과 연결될 때 생명력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오락이나, 심지어 악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 교회의 재설계는 다음과 같은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 선교적(M) 정체성을 체험적(E)·참여적(P)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한다.  
(예: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며 ‘가라’는 사명을 체험)
- 관계적(R) 공동체를 연결적(C)·이미지 중심적(I)인 인터페이스로 강화한다.  
(예: 소그룹의 삶의 이야기를 시각적 자료(사진, 그림)와 함께 나누며 깊은 관계 형성)
- 성육신적(I) 접근을 EPIC의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구체화한다. (예: 특정 ‘우편번호’의 문화와 필요를 연구(이미지/스토리),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참여적 프로그램을 개발, 공동의 경험을 창출)

이 MRI-EPIC 통합 모델은 일본 교회가 포스트모던 사회라는 복잡한 ‘하드웨어’에서,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OS)를 가지고, 동시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UI)로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사진을 제공한다.<sup>79</sup> 다음 장에서는 이 이론적 모델이 일본 나고야의 아이신그리스도국 제교회(愛心キリスト国際教会: Aishin International Christian Church)라는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것이다.

---

<sup>79</sup> Ibid.

## IV. 사례 연구: MRI-EPIC 모델의 현장 검증 -

###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

이론적 패러다임의 타당성은 궁극적으로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과 실제적 변혁 능력을 통해 입증된다. 본 장은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愛心キリスト国際教会: Aishin International Christian Church, 이하 AICC)를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제2장에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MRI-EPIC 통합 모델이 실제 포스트모던 일본의 다문화적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례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첫째, AICC의 사역 실제에서 드러난 APC(Attractional-Propositional-Colonial) 패러다임의 극복 양상을 고찰한다. 둘째, MRI(Missional-Relational-Incarnational) 패러다임과 EPIC(Experiential-Participatory-Image-based-Connected) 구현 원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상호 역동적으로 작동하는지 탐색한다. 셋째, 이 사례가 일본 교회의 선교적 갱신과 정체성 전환에 주는 실천적, 신학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장은 연구 방법론을 상세히 기술하고, 예배, 소그룹, 지역 참여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MRI-EPIC 모델의 구현 양상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A. 사례 선정 이유: 국제교회로서의 특수성과 모델 검증의 적합성

AICC는 2021년 일본 나고야에 설립된 비교적 젊은 교회로서, 본 연구의 사례 연구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합성과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다문화 공동체로서의 구성적 특성이다. AICC는 의도적으로 일본인 신자와 외국인 거주자(한국인, 중국인, 캄보디아인, 인도네시아인 등)를 포용하는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러한 구성적 특성은 APC 패러다임의 식민적(Colonial) 태도-특정 문화의 우월성을 전제로 타문화를 동화시키려는 경향-를 극복하고, 복합적 현대 사회 속에서 성육신적(Incarnational)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MRI 패러다임의 교차문화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현장이다.

둘째, 선교적 실험으로서의 성격이다. AICC의 설립 배경에는 기존 일본 교회의 제도화된 모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개척자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교회 운영 패러다임'을 탐색해 왔으며, 이는 MRI-EPIC 모델이 제안하는 선교적 전환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실험적 성격'은 이론적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맥락적 조건이 된다.

셋째, MRI-EPIC 요소의 가시적 구현이다. AICC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배, 소그룹, 지역 참여 영역에서 MRI 패러다임과 EPIC 구현 원리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기간 동안 관찰 가능한 이러한 실천들은 이론적 모델의 현장 검증을 위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 B. 연구 방법론

본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 특히 단일 사례 연구(single case

study)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사례 연구는 현실 맥락 속에서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으로, 특히 새로운 현상이나 이론적 모델의 현장 적용을 탐색하는 탐색적(exploratory) 연구 설계에 적합하다.<sup>80</sup> 본 연구는 AICC라는 구체적 현장에서 MRI-EPIC 모델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례 연구 방법론이 가장 적절한 연구 전략이라 판단하였다.

### 1. 연구 현장 및 참여자

연구 현장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가와구에 위치한 AICC이다. 이 교회는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캄보디아인, 인도네시아인, 네팔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국적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일 예배는 일본어와 중국어(동시통역)로 진행된다. 등록 교인은 약 50여 명이며, 주일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은 35~40명, 연령대는 유아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연구 참여자는 총 7인으로, 공동 개척자 선교사 1인, 일반 교인 5인(일본인 3인, 캄보디아인 1인, 인도네시아인 1인), 지역 사회 협력자(1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통해, 다양한 국적, 연령, 직분의 관점과 경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개월간 이루어졌으며,

---

<sup>80</sup> Robert K.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4), 4-10.

방법론적 삼각측량(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주일예배(총 24회), 소그룹 모임('성경회', 주 3회, 총 72회), 지역 사회 참여 활동(월 1회, 총 6회)에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관찰의 초점은 예배 및 모임의 진행 방식,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패턴, EPIC 요소(체험적, 참여적, 이미지 기반, 연결적)의 구현 양상, MRI 정체성의 표현 방식 등에 두었다.
-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 연구 참여자 7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질문은 교회 선택 동기, 신앙 경험의 변화, 공동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APC 및 MRI-EPIC 개념과 관련된 체험적 진술을 유도하도록 구성되었다. 면접은 1인당 약 60-90분간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한 후 전사(transcription)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문서 자료(Document Analysis): AICC의, 주보, 소식지, SNS 게시물, 내부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문서들은 교회의 공식적 정체성과 비공식적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브라운과 클라크(Braun & Clarke)가 제시한 6단계 절차(자료 숙지, 초기 코드 생성, 주제 탐색, 주제 검토, 주제 정의 및 명명, 보고서 작성)에 따라,<sup>81</sup> 수집된 자료(관찰

---

<sup>81</sup> Virginia Braun and Victoria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no. 2 (2006): 77-101.

일지, 면접 전사본, 문서)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의미 있는 패턴과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APC 극복 사례와 MRI-EPIC 구현 사례의 범주로 체계화하였다.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 자료 삼각측량(data triangulation): 다양한 자료 출처(관찰, 면접, 문서)를 교차 검증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다.
-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분석 결과의 일부를 연구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연구 과정과 분석 결과를 연구 동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 C. AICC에서 나타난 APC 패러다임의 극복 및 MRI 패러다임의 구현 사례 분석

#### 1. 유인적(Attractional) 모델을 넘어선 선교적(Missional) 실천

AICC는 개척 초기, 전형적인 유인적(Attractional) 모델을 채택하였다.

프로그램 중심의 전도와 시설 개선을 통해 교인 수를 1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증가시키는 외형적 성장을 경험했으나, 공동체 내부의 영적 활기는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에 직면했다. 공동 개척자의 면접은 이러한 한계를 생생히 증언한다.

“저희 일본 선교사들 사이에는 흔히 ‘30명의 벽’ 이라고 불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30명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자 설비도 개선하고, 환경도 가꾸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원이 아니라 교회 내 활기였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기쁨과 열정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시설과 프로그램은 편의성과 안락함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신앙의 활기를 불어넣지는 못했습니다.” (선교사, 면접)

이러한 위기는 공동체로 하여금 근본적인 정체성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하며, 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대한 재인식으로 이어졌다.

“국적, 언어, 세대, 자라난 배경이 다를 이들이 어떻게 일본에서, 그것도 ‘나고야’ 라는 특정 지역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원함도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자 다른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임마다 매번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교적 부르심이 있다’ 는 선교적 소명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면접)

AICC는 모임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교적 부르심이 있다"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이는 공동체의 활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AICC의 예배 중에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sent people)이다” 이다. 이 정체성은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 화해와 섬김, 정의의 표지(signs)를 드러내며 존재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둔다.<sup>82</sup>

<sup>82</sup> Ken Gnanakan, *Proclaiming Christ in a Pluralistic Context*, Rev. ed.

AICC의 선교적 실천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의도적 자원 배분의 전환이다. 교회는 5년간 예배 장소를 교인 수 대비 협소한 대여 사무실 공간으로 유지하면서, 상당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지역 사회 섬김에 할당하였다. 특정 '우편번호' 구역 내 청소 활동,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지원, 노숙자 환경 개선을 위한 예배 및 물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추수감사절에는 봉헌된 과일과 헌금으로 마련한 겉옷, 식료품을 노숙자들과 나누며, 이 모든 활동을 '섬김의 훈련'으로 개념화한다.



(사진 1) 추수감사절 봉헌된 과일



(사진 2) 추수감사절 전교인 노숙자 섬김



(사진 3) 추수감사절 전교인 노숙자 예배



(사진 4) 추수감사절 전교인 노숙자 구호물품

---

(Bangalore: Theological Book Trust, 2002), 45-60.

“AICC는 나고야 노숙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단체에서 물품을 기부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AICC는 노숙자들의 육체적 필요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안에 심리적, 영적 필요를 보고 채우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 예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전 교인들이 함께 오는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노숙자 분들도 온교회가 함께 섬기로 오는 교회로 AICC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협력자, 면접)

둘째,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선교이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했으며, 노동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sup>83</sup> 사회 기간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실습생’이라는 노동자 신분으로 상당 수의 외국인들이 일본에 거주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ICC는 나고야 지역의 제조업 밀집 특



(사진 5) 기능실습생 성경회

<sup>83</sup> 일본 내각부. 『레이와6년고령사회백서(전체판)』. 도쿄: 내각부, 2024.

성상 다수의 외국인 기능실습생이 주말이 쉬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음을 주목했다. 이들에게 주일 예배 참석을 강요하기보다, 그들의 일정에 맞춘 '성경회'를 제공한다. 성경회를 통해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이들이 일본의 빠른 적응을 위해 특화된 성경과 찬송을 통해 일본어 학습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능실습생이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능력시험을 합격해야만 한다. AICC는 일본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차량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다. 시험날이면 교회 등록, 출석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험 당일 날 기숙사에서 시험장까지 차량지원을 한다. 이는 기능실습생 내에서도 기독교라는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배려이다. 타지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은 배척 받고 따돌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을 통해, 그들이 비난하던 기독교인으로 인해 편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섬김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기독교인이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선교적 실천이다.



(사진 6) 일본어능력시험장 차량지원

“AICC의 비기독교인들에 대해 베푸는 친절은, 저의 근로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함께 일하는 기능실습생들 사이에 교회 이야기가 오가며, 새로 입국한 동료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교인 K, 면접)

AICC의 선교적 실천은 교인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회적 관계 속으로 ‘보내는’ (Sending) 선교적(Missional) 정체성의 표현이다.<sup>84</sup>

“우리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보다 '가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건물에 앉아서 오기만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우편번호)에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사, 면접)

이러한 사례는 AICC가 APC의 유인적 모델을 넘어, 공동체를 사회적 관계 속으로 '보내는'(sending) 선교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교회 건물이 낯선 공간이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일본 사회의 맥락에서, '나감'을 전제한 선교적 실천은 더욱 의미 있는 대안으로 기능한다.

## 2. 명제적(Propositional) 소통을 넘어선 관계적(Relational) 소통

AICC는 개척 초기 "일본인들은 학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전제 아래, 논리와 이성을 중심으로 한 강해 설교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적

<sup>84</sup> Hirsch, *The Forgotten Ways*, 82-110.

소통 방식은 교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다.

“수많은 정보와 숫자 사이에서 사실 판단을 하는 삶에 지쳐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또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벽이 높게 느껴졌어요.” (일본인 교인 S, 면접)

이러한 피드백은 AICC로 하여금 예배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끌었다. 예배는 복음의 무오성(Inerrancy)을 설득하기 위한 논증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성(Integrity)이 공동체 가운데 현현(顯現)하는 관계적 사건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공간과 시간으로 재조정되었다.

AICC의 관계적 소통은 예배 의식의 변화에서 가시화된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 참여자 모두가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치며 '주님의 평화'를 의미하는 '슈노헤이와(主の平和)'라고 인사하는 의식은, 신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임을 몸으로 체현(embody)하는 행위이다.



(사진 7) AICC의 예배 중 성도의 교제

특히 주목할 점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1시에 열리는 AICC 소그룹 모임인 '성경회'의 독특한 구조다. '찬양, 삶의 나눔, 성경공부, 기도'의 전형적 순서에 더해, 반드시 식탁 나눔으로 시작한다는 원칙은 관계적 소통의 핵심적 장치이다.

“'식구(食口)'는 '먹는 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매년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수고롭지만, 그 수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관계성을 식탁 교제로 체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선교사, 면접)

이러한 관계적 접근은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접속한다. 2020년 기준 일본의 '단독세대(単独世帯)'는 전체 세대의 38%에 달하며, 이는 독거노인과 고독사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sup>85</sup> 이러한 맥락에서 AICC의 식탁 나눔과 관계 중심 접근은 복음의 관계적 본질을 구현함과 동시에, 현대 일본 사회의 고립 문제에 대한 대안적 공동체 모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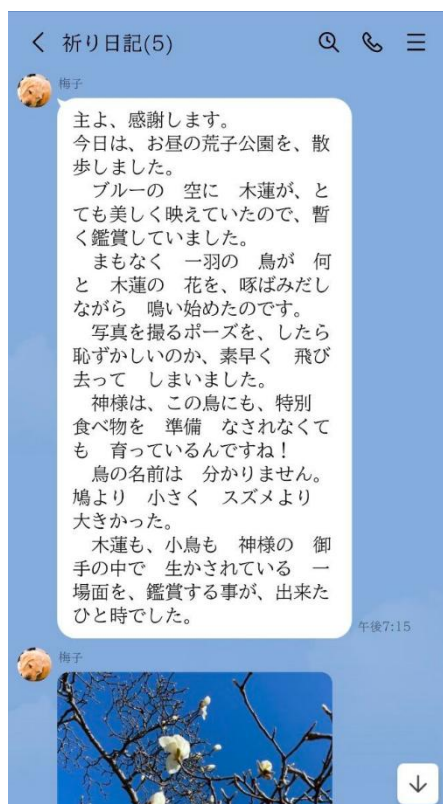
“저는 1인 가구로, 일주일 내내 혼자 식사합니다. 때로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어요. 식사 시간의 침묵은 고독의 시간이며 회피하고 싶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족처럼 함께 식사할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인 성도 M, 면접)

또한 AICC는 1인 가구 교인들을 위한 '기도일기' SNS 그룹을 운영한다. 매일 감사 기도를 나누는 이 공간은 신앙 성찰의 장이면서 동시에 교인들의 건강과

<sup>85</sup> 総務省統計局. 『令和2年国勢調査』. 総務省, 2020.

또한 참조: 강기철, “일본 고독사 통계에 관한 연구,” 『日本語教育』 113호 (2025): 111-128.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의 네트워크로 기능한다.



(그림 1) AICC 기도일기

“[기도일기]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심에 아라코 공원을 산책하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목련이 매우 아름답게 보여 가까이 가서 감상하였습니다. 잠시 후 한 마리 새가 목련의 꿀을 먹으며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부끄러웠는지 금세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새에게도 특별히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먹여주시는군요. 새의 이름은 모릅니다. 비둘기보다 작고 참새보다 컸어요. 목련도 작은 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한 장면을 감상할 수 있는 한 때였습니다.” (일본인 교인 A, 기도일기)

“저처럼 나이가 많은 노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일기를 제안해 주셨고, 지금은 이 일기를 통해 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지체들과 이 기도를 나눔으로 그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일본인 교인 A, 면접)

이 '기도일기' SNS 그룹은 MRI 패러다임의 관계적(Relational) 소통이 EPIC 인터페이스의 연결적(Connective) 요소를 통해 구체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정보 공유나 친교를 넘어, 이 공간은 공간적 거리를 넘어선 '함께 있음'의 경험을

창출하며, 교인들이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돕는다. 이는 포스트모던 세대가 추구하는 '관계를 통한 진리 체험'의 한 형태이자, 교회가 디지털 시대에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 모델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례는 AICC가 APC의 명제적 소통을 넘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삶을 함께 짊어지는 관계적 소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관계는 단순한 친교를 넘어, 복음의 진실성을 삶의 맥락에서 구현하는 증보적 관계의 성격을 지닌다.

### 3. 식민적(Colonial) 동화에서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으로의 전환

AICC는 정체성을 "일본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는, 일본에 위치한 국제교회"로 지향하지만, 이러한 지향점을 향한 과정에서 중요한 갈등을 경험했다. 개척 초기, 한국인 개척자와 일본인 성도, 재일중국인 성도들 사이에 민족적 정체성을 둘러싼 '기싸움'이 발생했다. 특히 중국인 성도들의 중국어 예배 요구를 "AICC는 모두를 위한 국제교회이지 중국인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을 때, 일부 성도들이 일본인만 편애한다고 오해하며 단체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AICC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단순히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적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공동체적 성찰로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AICC는 선교지의 복합적 환경에 단순히 '대응'하는 수동적 태도를 넘어, 지역의 다문화적 구성(일본인, 중국인, 캄보디아인, 인도네시아인 등)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 명절을 존중하며 예배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성육신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된다.<sup>86</sup>

이러한 전환의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적 포용을 통한 성육신적 실천이다. AICC의 주보에는 주제 성구가 여러 나라 언어로 쓰여 있다.



2025年11月2日  
聖靈降臨後第二十一主日/ 諸聖人の日  
Twenty First Sunday after Pentecost / All Saints Sunday



そして、これらすべての上に、愛を着けなさい。愛は結びの帯として完全です。

*But above all these things put on love, which is the bond of perfection.*

在这一切之外，要存着爱心；爱心就是联络全德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Dan di atas semuanya itu: kenakanlah kasih,

sebagai pengikat yang mempersatukan dan menyempurnakan.

នៅលើសេចក្តីទាំងអស់នេះ ចូរបន្ថែមសេចក្តីស្រឡាញ់ ដែលជាចំណងនៃសេចក្តីគ្រប់លក្ខណ៍។

*Trên hết các mỹ đức ấy, hãy thêm tình yêu thương, là sợi dây ràng buộc toàn hảo.*

【コロサイ人への手紙 3:14】

〒454-0869 愛知県名古屋市 中川区 荒子 2 丁目 6 4

☎ (052) 886-5044

(그림 2) 각 나라 언어로 주세 성구가 쓰여 있는 AICC 주보

<sup>86</sup> Ken Gnanakan, *Proclaiming Christ in a Pluralistic Context*, 45-60.

“어느 날 교회 주보에 크메르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 나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인 교인 M, 면접)

또한 매 예배마다 찬양 가사, 시편 교독, 성경 봉독은 세 가지 언어 이상으로 제공되며,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 설교 원고가 6개 언어로 번역 출력된다. 이는 특정 언어와 문화의 우월성을 전제로 타자를 동화시키려는 식민적 모델을 탈피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다.



(사진 8) 여러 언어로 가사를 제공하는 AICC 경배와 찬양 시간

둘째, 문화적 수용과 변혁의 변증법이다. AICC는 교인 개개인이 지닌 문화를 단순한 통합이나 변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각 구성원들의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문화의 언어와 상징을 통해 복음을 소통하고자 한다.

“국제교회의 어려움은 다양함의 공존과 서로 다른 민족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어떻게 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sup>87</sup>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선교사, 면접)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문화적 절기와 의례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이어졌다. 매년 1월 10일이 되면 일본은 20살을 맞이한 청년들이 성인식을 매우 성대하게 거행한다. 결혼식만큼이나 중요한 관혼상제이기 때문에, 고가의 전통적 의상을 착용하고, 온 친지족들의 축하를 받는 날이다. 다만 성인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신사(神社)인 점을 고민하는 성도에 대해, AICC는 교회 예배처를 성인식 공간으로



(사진 9) 2022년 성인식

<sup>87</sup> 빌립보서 2:5-11

제공하고 다과를 준비하여, 신사에서 거행되는 전통적 성인식의 대안이자, 그 문화적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독교 인구 1프로 미만의 소수 사회인 일본에서 기독교 장례는 매우 드물다. 당사자가 기독교라 할지라도 가족이 기독교가 아닌 경우, 장례 후에도 자신들의 조상의 위패를 섬기는 것을 ‘효’ 라고 생각하는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일본인은 선뜻 기독교 장례를 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AICC는 일본인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 문화속에서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장례를 치르고, 장례 후 추도식 장소와 집례를 교회에서 제공하여, 유가족들이 그들의 문화적 울타리 안에서 주기적으로 복음의 희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진10) 2023년 일본인 교인 T 장례식

보다 복잡한 사례는 일본 가정의 신도식 제단(카미다나)과 불교식 가정 제단(부즈단) 문제였다. 일본은 가정마다 신도(神道)의 주신(主神)과 지역신과 같은 부신(副神)을 모시는 카미다나(神棚)와, 조상을 신격화하며 성불(成佛)하도록 돕는 부즈단(仏壇)이 있다. 일본은 전통적 가옥부터 현대 가옥에 이르기까지 카미다나와 부즈단을 놓는 전용 공간이 설계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의 전통문화와 깊게

관여되어 있다. 특히 부츠단은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족 공동관리 부분이라,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일본 교회도 이렇다할 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츠단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문의를 하는 교인이 있었다.

“주변에 있는 일본교회나 같은 교단 소속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문의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없으셨어요. 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Y상의 믿음에 대해서는 매우 기뻐지만, 당사자나 주변 가족들, 그리고 지역 지인들에게 일본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Y상의 신앙을 표현해 나가는 방식이 어때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요.” (선교사, 면접)



(사진 11) 좌측위의 카미다나(神棚)와 부츠단(仏壇)을 정리하는 새출발 감사예배

AICC는 이 문제에 대해 '철거'나 '처분'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조상에

대한 존중과 효심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리고 '새출발 감사' 예배를 통해, 날마다 신도의 우상에게 복을 빌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는 자리로 전환하는 신앙고백의 장을 마련했다. 부즈단을 모시던 자리에는 십자가와 꽃을 선물하며, 문화적 연속성과 신앙적 단절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모색했다.

“Y상은 자신이 우상들을 섬기던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주변 분들에게 큰 위화감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선교사, 면접)

이 외에도 학생들의 학년이 바뀌게 되는 4월의 진학식(進學式)이나, 5월의 어머니의 날, 6월의 아버지의 날, 11월의 경로의 날 등 전통적 교회 절기 행사와 관련이 없는 일본의 경축일이나 문화 행사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기뻐하는 등 일본의 문화와 절기행사를 사용하여 그들의 문화 가운데 복음을 소통한다. 또한 일본 사회안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재일(在日)중국인을



(사진12) 2022년 중국인 교인 N 혼인식

위해 중국의 혼인식 문화나 중추절과 같은 명절을 수용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함께 참여하는 등 그들의 필요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자 복음을 소통한다.

셋째,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성육신적 확장이다. AICC의 성육신적 접근은 교회 건물을 넘어 물리적 거리로까지 확장된다. 차로 약 2시간 거리의 미에(三重) 지역에는 중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가 없었다. AICC는 교역자와 장로, 통역자가 주 1회 이 지역을 방문하여 중국 식당 종업원들의 휴식 시간에 성경 공부를 제공했다. 세례를 원하는 세 명이 나타났을 때, 3개월간의 세례 교육 후, 교인들은 연차를 내어 함께 미에 지역으로 가서 세례식을 거행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교회 건물을 떠나 그들의 장소로 나아간 것이다.



(사진13) 미에현에서의 교회 밖 세례식

이러한 사례들은 AICC가 APC의 식민적 접근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패러다임-하나님이 인간의 구체적 삶의 자리에 들어오신 사건-을 모델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AICC는 자신의 '우편번호'를 선교지로 인식하고, 복음을 추상적 진리가 아닌 구체적 삶의 언어로 번역하며,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육신적 공동체로 전환하였다.

#### D. AICC의 MRI 패러다임 분석: 순환적 역동성과 통합적 적용

이상의 AICC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성(process) 과 MRI 요소 간의 상호 내재성(interpenetration) 이다.

##### 1. APC에서 MRI로의 점진적 전환 과정

AICC의 사례는 교회 개척初期, 불가피하게 APC 패러다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소수로 시작한 교회는 외형적 성장을 위해 유인적(Attractional) 모델을, 복음의 기초를 닦기 위해 명제적(Propositional) 소통을,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식민적(Colonial)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APC 패러다임은 내적 한계와 갈등에 직면했다. '30명의 벽'이라는 양적 한계, 명제적 설교에 대한 교인들의 피로감,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한 이탈 사건은 APC 패러다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APC 패러다임의 한계와 위기를 통해 AICC는에서 점진적으로 MRI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즉,

- 유인적 모델의 한계는 선교적(Missional) 실천으로의 전환을,
- 명제적 소통의 한계는 관계적(Relational) 소통으로의 전환을,

- 식민적 접근의 한계는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으로의 전환을 각각 촉발했다.

## 2. MRI 세 요소의 상호 내재성과 순환적 역동성

AICC 사례를 통해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은, MRI의 세 요소- 선교적(Missional) 실천, 관계적(Relational) 소통,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가 별개의 독립적 범주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통합적 프레임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MRI 세 요소는 다음과 같은 순환적 역동성(circular dynamism)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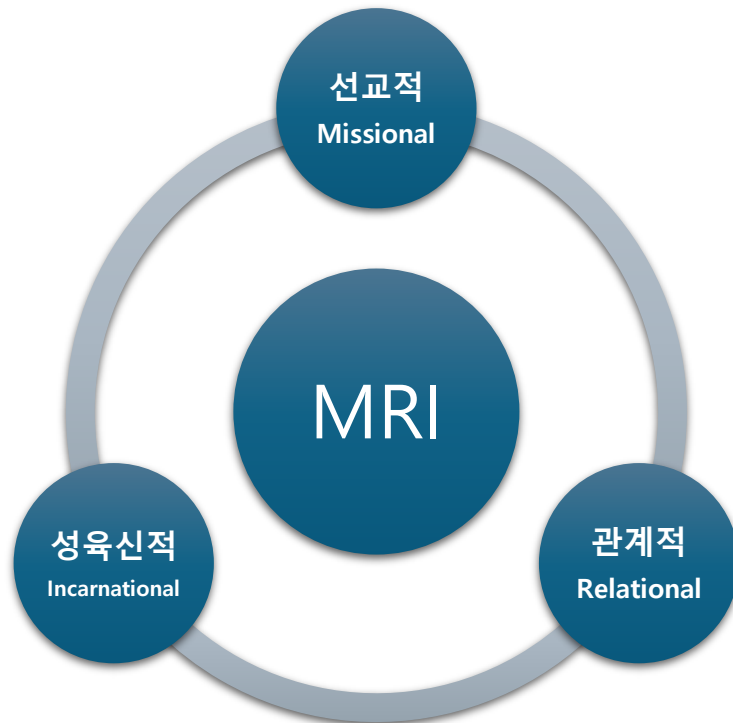
첫째, 선교적 실천은 관계적 소통과 성육신적 접근을 전제한다. AICC의 외향적 선교는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이 아니라, 기능실습생들의 구체적 삶의 자리(성육신적 접근)에 들어가 그들의 언어와 필요를 이해하며(관계적 소통) 이루어졌다. 선교는 관계의 맥락 없이, 그리고 문화적 토착화 없이 공허한 활동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둘째, 관계적 소통은 선교적 실천과 성육신적 접근을 지향한다. 식탁 나눔과 기도일기로 대표되는 AICC의 관계적 소통은 공동체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고립된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선교적 실천으로 확장되며, 그들의 구체적 삶의 자리(성육신적 접근)와 연결된다.

셋째, 성육신적 접근은 관계적 소통과 선교적 실천을 내포한다. 일본의 성인식, 장례 문화, 가정 제단 문제에 대한 AICC의 성육신적 접근은 단순한 문화적 수용에 그치지 않고, 그 문화 속에서 관계를 맺고(관계적 소통), 그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이는 MRI의 세 요소가 삼위일체적(Trinitarian) 성격을 지님을 시사한다. 즉, 각 요소는 다른 요소와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구현될 때 다른 요소들도 함께 구현되는 상호 내재적(perichoretic) 관계를 형성한다.<sup>88</sup> 하나님의



(그림 3) MRI의 삼위일체적(Trinitarian) 성격

진실성(Integrity)이 공동체 가운데 현현하도록 관계적 소통을 시도하면, 그 소통은 성육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선교적 실천으로 확장된다. 또한 성육신적 접근은 그 자체로 관계적 소통을 수반하며 선교적 실천으로 완성된다.

### 3. MRI 패러다임의 선교적 함의: 통합적 적용의 필요성

<sup>88</sup> John of Damascus, *The Orthodox Faith*,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37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8), 14-16.

이러한 분석은 선교적 교회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MRI 패러다임은 세 가지 전략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실천, 관계적 소통, 성육신적 접근을 분절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역동적 순환 구조 속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AICC의 사례는 이러한 통합적 적용이 일본이라는 특수한 선교지에서 교회의 갱신과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전통적 종교 문화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MRI 패러다임은 복음의 관계적 본질을 회복하고, 문화적 토착화를 통해 복음을 구체적 삶의 언어로 번역하며, 공동체를 사회 속으로 보내는 선교적 실천의 동력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AICC의 사례는 MRI 패러다임이 단순한 이론적 구성물이 아니라, 포스트모던 일본의 다문화적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 가능하며, 교회의 선교적 갱신을 위한 효과적 프레임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특히 MRI 세 요소의 상호 내재적 순환 구조는, 미래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명제적 선포가 아닌 관계적 삶으로, 프로그램 중심의 유인이 아닌 성육신적 나감으로, 문화적 동화가 아닌 문화적 토착화를 통한 선교적 실천으로 구현해야 함을 시사한다.

#### E. AICC에서 나타난 EPIC 인터페이스 모델의 구현 사례 분석

MRI 패러다임이 교회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라면, EPIC 모델은 그 내용을 포스트모던 문화에 전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로서 기능

한다.<sup>89</sup> AICC는 선교적(Missional) 정체성, 관계적(Relational) 소통,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이라는 MRI 운영체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EPIC의 네 가지 요소-체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이미지 중심적(Image-rich), 연결적(Connective)-를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AICC의 예배와 소그룹, 지역 사회 참여 활동에서 나타난 EPIC 인터페이스의 구현 양상을 분석한다.

### 1. 체험적(Experiential) 요소: '맛봄'으로서의 예배

AICC의 예배는 단순한 진리의 설명을 넘어 '맛봄(tasting)'의 장으로 설계된다. 이는 포스트모던 세대가 추상적 명제보다 구체적 경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응답이다.

- 패밀리 워십(Family Worship):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의 경험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매월 세 번째 주일에 열리는 '패밀리 워십(Family Worship)'이다. 유아부터 청년, 장년, 노인까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명제적 소통에 정체된 전통적 예배 형식을 갱신하고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시도이다. 이 예배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함께'라는 경험 자체에 있다. 서로 다른 연령대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은, 신앙이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보편적 진리임을 몸으로 체험하게 한다.

---

<sup>89</sup> Leonard Sweet, *Postmodern Pilgrims*, 30-45.



(사진 14) Family Worship 찬양 시간

- 오감(五感)을 통한 말씀 섭취 ‘성찬’의 경험

예배의 체험적 요소는 감각과 정서를 포함한 총체적 경험 설계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한 일본인 교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함께 먹고, 섬기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설교 후 성찬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성찬을 통해 눈으로 말씀을 보고, 손으로 말씀을 만지고, 코로 말씀의 냄새를 맡으며, 입으로 말씀을 맛보라.' 말씀이란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감(五感)을 통해 체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의 신사나 불당도 보고, 직접 흔들거나 만지는 등의 참여 의식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교회의 예배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인 교인 A, 면접)

이러한 오감을 통한 체험 설계는 성찬식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총체적 경험으로 전환시킨다. 말씀이 귀로만 듣는 추상적 진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실재가 되는 것이다.

- 외국에서 모국어로의 '찬양'의 경험

정기 예배가 아닌 성경회 때의 찬양 시간에도 이러한 체험적 요소는 나타난다. 한 캄보디아인 교인은 자신의 모국어로 찬양을 부르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제가 교회를 처음 방문한 날, 간단한 다과 후 한 교인분이 '뿌레야콘(은혜)'이라는 노래를 크메르어로 소개하며 함께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뿌레야콘'은 왕족에게나 사용하는 단어라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데, 드럼과 피아노, 기타 라이브 반주에 맞춰 함께 노래부르자며 저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었을 때 저도 모르게 힘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였지만, 그 경험은 특별했고 교회에 꼭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캄보디아인 교인 M, 면접)

이 증언은 모국어로 찬양하는 경험이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정서적·영적 울림을 창출했음을 보여준다.

- 식탁 나눔을 통한 '말씀'의 경험

'성경회'는 항상 식탁 나눔으로 시작하며,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가운데 감각과 정서를 포함한 총체적 경험을 강조한다. 다른 일본인 교인은 성경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처음에 목사님이 성경회 참석을 제안했을 때,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따분한 시간일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성경회'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따뜻하고 푸짐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함께 식사하며 배가 채워진 후에야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음식을 섭취했던 것처럼, 성경구절을 읽고 서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일본인 교인 Y, 면접)

이러한 경험 중심 접근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 의식을 강화하는 기초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감각적 자극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 2. 참여적(Participatory) 요소: 공동 창작자로서의 회중

AICC에서 참여적 요소는 체험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도, '무엇을 행하고 기여하는가'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체험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교인들은 예배와 공동체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얻게 된다.

### ● 패밀리 워십에서의 참여

앞서 언급한 패밀리 워십에서는 참여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잘 훈련된 찬양팀만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찬양팀이 되어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설교 강단은 훈련된 설교자의 독점적 공간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강단에 올라와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은혜를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여러 세대가 함께 모인 만큼 설교 메시지는 일방적 강의가 아닌,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적 구조를 지향한다.



(사진 15) Family Worship 어린이들 예배 참여

- 단기선교팀과의 협력을 통한 참여 확장

AICC에는 다양한 한국 단기선교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초기에는 단기선교팀이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고 교인들은 수동적으로 '체험'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공동체는 이러한 수동적 태도가 장기적으로 건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단기선교팀 방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는 수동적 자세는 단기적으로 유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선교팀이 올 때 그들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받아 우리도 무언가에 참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교사, 면접)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대표적 사례가 '국제식탁교류회' 이다. 교인들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초청하고, 각기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특별한 음식이나 디저

트를 준비한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자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보는 참여형 코너를 마련하여 방문자들도 행사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식탁교류회’는 많은 방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AICC 교인들도 자신감을 얻어 그 후로도 ‘국제식탁교류회’ 지속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교인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했고, 이 경험은 교회 밖 선교로의 참여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16) 국제식탁교류회

-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한 선교 참여

이후 단기선교팀 방문 시, AICC는 자신들의 교회가 아닌 일본 현지 시골의 N 교회에서 찬양 집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단기선교팀의 찬양 사역에 AICC 성도들이 다과회 준비로 함께 참여하는 '아웃리치'를 실시하였다. 아직 미

자립 상황으로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AICC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골 N교회에 선교를 가게 된 것이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경험에 대해 교인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N교회에 다녀온 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임대 사무실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처에 더 깊은 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교인 G, 면접)



(사진 17) N교회 아웃리치

중요한 점은 국제식탁교류회, 아웃리치와 같은 참여적 요소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유인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자신의 일상적 삶의 현장-가정, 직장, 이웃 관계-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습하고 체험하는 장' 으로 기능한다. 참여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선교적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훈련의 과정인 것이다.

### 3. 이미지 중심적(Image-rich) 요소: 시각적 비유를 통한 소통

AICC는 일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제교회라는 특성상,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기반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성경본문을 여러 언어로 표기하는 기능적 도구를 넘어, 본문의 강력한 비유와 상징을 시각화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CC가 일본의 문화적 맥락에 친숙한 이미지와 상징을 활용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각 자료의 사용을 넘어, 일본인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코드에 깊이 공명하는 성육신적(Incarnational) 소통의 시도라 할 수 있다.

#### ● 킨즈기(金継ぎ) 비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AICC는 복잡한 논리적 설명 대신 일본 전통공예인 '킨즈기(金継ぎ)'를 이미지로 제시한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이 기법은 단순한 수리를 넘어, 깨진 자국을 금으로 장식하여 오히려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독특한 미학을 지닌다.

이 이미지가 일본인에게 강력한 공명을 일으키는 이유는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인 '와비사비(侘び寂び)'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와비사비는 불완전함, 무상함, 소박함, 덧없음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본 특유의 미의식이다.<sup>90</sup> 완벽하지 않은 것, 깨지고 낡은 것에서 오히려 깊은 아름다움과 진정성을 느끼는 이 감수성은, 인간의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복음의 역설과

<sup>90</sup> Leonard Koren, *Wabi-Sabi for Artists, Designers, Poets & Philosophers* (Berkeley, CA: Stone Bridge Press, 1994), 7-12.

놀랍도록 조용한다. 킨츠기 이미지는 '죄인 된 우리'라는 결핍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금)를 통해 오히려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으로 재창조된다는 메시지를, 일본인의 심층 미의식에 호소하며 전달한다.



(사진18) 설교 중 일본 전통공예 킨츠기(金繼ぎ)를 통해 '증인된 삶'을 비유

- 자수(刺繡) 비유

'엷히고설킨 의문투성이인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는 자수의 앞면과 뒷면 이미지를 대조하며 보여준다. 뒷면은 실이 엷히고설켜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앞면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드러난다. 이 이미지는 우리의 유한한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비유 역시 일본 문화의 정서와 깊이 연결된다. 인생의 '뒷면'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앞면'의 아름다운 문양을 완성한다는 메

시지는 일본 전통 자수를 떠올리게 하여 일본적 감수성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사진19) 자수의 뒷면 실타래처럼 보이는 인생 (사진20) 인생 이면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

### ● 절기와 공간 연출

교회력에 따른 절기 때에는 메시지뿐 아니라 모임 공간의 물리적 분위기 자체가 그 절기의 의미를 말하도록 한다.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 장식은 물론, 참석자 모두가 크리스마스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선물을 준비하여 예배에 참석한다. 손에 들고 온 선물은 황금과 유향, 몰약을 준비한 동방 박사의 이미지를, 또한 선물 교환을 통해 나눈 선물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사진 21)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식

부활절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색 풍선으로 예배당을 장식하고, 모든 참석자에게 풍선을 나누어 줌으로써 '새로운 부활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져 있으며, 이 부활의 기쁨은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이미지 중심적 접근은 언어적 장벽을 넘어 보편적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해당 문화권의 심층적 미의식과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더 오래 기억하고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특히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익숙한 포스트모던 세대에게 이러한 접근은 복음의 진리를 그들의 문화적 언어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사진 22) 부활 주일 예배당을 장식한 하얀색 풍선



(사진 23) 하얀색 풍선(부활의 기쁨)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

#### 4. 연결적(Connective) 요소: 관계 네트워크로서의 공동체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이 EPIC 프레임에서 제시하는 연결성(Connective)은 단순한 '교제'나 '정보 공유'를 넘어, "관계가 곧 메시지"가 되는 현대 문화의 핵심적 특성을 반영한다. 포스트모던 세대는 더 이상 추상적 진리로서의 '정보'만을 찾지 않으며,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통해 의미와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ICC의 연결적 요소는 MRI 패러다임의 관계적(Relational) 소통이 EPIC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체화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AICC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의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오프라인 모임과 결합되어 물리적으로 떨어진 교인들 간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특히 재일 외국인 교인들의 경우 직장이나 가정 사정으로 정기적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와 소셜 미디어 그룹(앞서 언급한 '기도일기' 등)을 통해 공동체와의 연결을 지속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간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함께 있음'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연결적 인터페이스의 핵심 기능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청년층)는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는 특성을 지닌다. 이들에게 연결성은 단순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정체성 형성의 핵심 기제이다. 이러한 세대적 특성을 인식하여 AICC는 한 달에 한 번 청년들과 함께 외부 활동을 진행한다. 때로는 자연으로, 때로는 역사적 현장으로 함께 이동하는 이 활동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영적 순례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들의 일상적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



(사진 24) 청년들과 관계 속에서 전달하는 복음



(사진 25) 청년들과 세상과 연결되는 복음을 알리는 소풍

이러한 AICC의 접근은 레너드 스윗이 제시한 연결성의 네 가지 차원과 조응한다. 첫째, 하나님과의 연결(Vertical Connection) 이다. 예배와 기도,

성경회를 통해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둘째, 공동체 내 연결(Horizontal Connection)이다. 식탁 나눔, 기도일기, 청년 외부 활동은 교인들 간의 관계망을 강화한다. 셋째, 세상과의 연결(Missional Connection)이다. 기능실습생 지원, 지역 사회 섬김, 국제식탁교류회는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이다. 넷째, 이야기를 통한 연결(Narrative Connection)이다. 각 교인의 삶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이야기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연결된다.

#### F. EPIC 요소의 통합적 작동: MRI 운영체제를 위한 인터페이스

지금까지 분석한 AICC의 EPIC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MRI 운영체제의 내용을 전달하는 통합적 인터페이스로 기능한다. 특히 레너드 스윗이 강조하듯, 연결성(Connective)은 EPIC의 다른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수행한다.<sup>91</sup>

AICC에서 EPIC 요소들의 통합적 작동은 다음과 같은 상호 연관성을 보여준다.

첫째, 체험(Experiential)은 연결(Connective) 속에서 더 깊어진다. 패밀리 워십이나 식탁 나눔의 경험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항상 타인과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체험된다. 함께 먹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경험은 공동체적 연결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획득한다.

둘째, 참여(Participatory)는 연결(Connective)을 통해 가능해진다. 국제식탁교류회나 아웃리치 참여는 교인들이 이미 형성된 관계망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할 때 가능하다. 연결성이 약한 공동체에서 참여는 단순한 노동으로

<sup>91</sup> Sweet, *Postmodern Pilgrims*, 40-55.

전략하기 쉽지만, AICC에서 참여는 관계의 확장이자 표현이다.

셋째, 이미지(Image-rich)는 연결(Connective)의 의미망을 형성한다. 킨즈기나 자수의 이미지는 단순한 시각적 자료에 머물지 않고, 교인들 간의 대화와 나눔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미지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징적 언어가 됨으로써 연결성을 강화한다.

넷째, 연결(Connective)은 EPIC의 결론이자 출발점이다. AICC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공동체와, 세상과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연결성은 이러한 사역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앞서 C-2절에서 살펴본 '기도일기' SNS 그룹은 이러한 연결성의 구체적 사례다. 이 공간은 단순한 정보 공유 수단을 넘어, 1인 가구 교인들과 고령 교인들에게 '함께 있음'의 경험을 제공하며, 공간적 거리와 물리적 고립을 넘어선 영적·관계적 연결망으로 기능한다. 이는 기술적 연결(technical connectivity)을 진정한 관계적 연결(relational connectivity)로 전환시키는 교회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EPIC 요소	AICC 구현 사례	MRI 패러다임과의 연결
체험적 (Experiential)	패밀리 워십, 오감을 통한 말씀 체험(성찬), 식탁 나눔	관계적(R) 소통의 구체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몸으로 체현
참여적 (Participatory)	국제식탁교류회, 아웃리치 참여	선교적(M) 실천의 훈련장 일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역량 강화
이미지 중심적 (Image-rich)	킨즈기, 자수와 같은 비유, 절기별 공간 연출	성육신적(I) 접근의 구체화 문화적 상징을 통한 복음의 번역
연결적 (Connective)	SNS 콘텐츠, 온라인 스트리밍, 기도일기, 청년 외부 활동	관계적(R) 소통의 확장이자 EPIC 전체의 접착제 모든 요소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음

(표 2) AICC의 MRI 운영체제에서 나타난 EPIC 요소

## G. 종합: EPIC 인터페이스와 MRI 패러다임의 순환적 관계

D-2절에서 MRI 세 요소(선교적, 관계적, 성육신적) 간의 상호 내재적(perichoretic) 순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MRI 운영체제와 EPIC 인터페이스 간의 순환적 상호 강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교회의 본질(OS)과 문화적 소통 방식(UI)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점이다.

AICC 사례를 통해 드러난 중요한 통찰은 EPIC 인터페이스와 MRI 패러다임이 단순한 도구-내용의 관계를 넘어 순환적 상호 강화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첫째, MRI 운영체제는 EPIC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체화되고 전달된다.

- 선교적(Missional) 정체성은 참여적(Participatory) 활동(국제식탁교류회, 아웃리치)을 통해 교인들의 삶 속에서 훈련되고 내면화된다.
- 관계적(Relational) 소통은 체험적(Experiential) 요소(패밀리 워십, 식탁 나눔, 오감을 통한 성찬 체험)를 통해 몸으로 체현되며, 연결적(Connective) 인터페이스(기도일기 SNS, 청년 외부 활동)를 통해 공간적 한계를 넘어 확장된다.
-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은 이미지 중심적(Image-rich) 소통(킨츠기, 자수 비유, 절기별 공간 연출)을 통해 문화적으로 번역되어 일본인의 심층 감수성에 호소한다.

둘째, EPIC 인터페이스의 경험은 MRI 패러다임을 강화하고 심화시킨다.

- 체험(Experiential)을 통해 체현된 관계적 소통은 추상적 '사랑의 명령'을 구체적 돌봄의 실천으로 전환시킨다.
- 참여(Participatory)를 통해 체험된 선교적 정체성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를 넘어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는다.
- 이미지 중심 Image-rich)을 통해 번역된 성육신적 접근은 복음이 일본 문화와 '낮선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한다.
- 연결(Connective)을 통해 이러한 모든 경험은 고립된 개인의 체험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살아 있는 이야기로 통합된다.

이러한 순환적 관계는 AICC 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니라,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복음이 관계를 통해 전염되고 경험을 통해 내면화되는 '살아 있는 네트워크(living network)' 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92</sup> 중요한 것은 EPIC 인터페이스가 단순한 방법론적 도구에 머물지 않고, MRI 운영체제의 본질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매체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즉, EPIC 은 MRI 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MRI 의 내용을 교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확장'하는 순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MRI-EPIC 의 순환적 관계는 교회 갱신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회는 먼저 건강한 MRI 운영체제(선교적 정체성, 관계적 공동체, 성육신적 접근)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본질을 포스트모던 문화에 효과적으로

---

<sup>92</sup> Ibid.

또한 참조: Leonard Sweet, So Beautiful: Divine Design for Life and the Church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2009), 25-35.

전달하기 위한 EPIC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갱신해야 한다. 동시에, EPIC 인터페이스를 통해 경험된 체험과 참여는 다시 MRI 운영체제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창출한다.

## V. 논의 및 실천적 제언: 일본 교회를 위한 재설계 로드맵

제4장의 사례 연구는 MRI-EPIC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증하였다. AICC는 APC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MRI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교적 실천, 관계적 소통, 성육신적 접근의 상호 내재적 순환 구조를 보여주었으며, EPIC 인터페이스를 통해 포스트모던 문화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개 교회의 사례를 일본 교회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APC에서 MRI-EPIC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 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본 교회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재설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로드맵은 특정 프로그램을 강요하기보다, 운영체제 재설정이라는 근본적 여정에 대한 단계별 안내를 목표로 한다.

### A. 사례 연구 결과의 종합 및 이론적 논의

#### 1. APC에서 MRI-EPIC으로의 전환에서 발견된 핵심 과제

AICC 사례와 기존 일본 교회 현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결합하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이 도출된다.

첫째, 정체성의 재정립 문제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피할 수 없다. AICC의 사례에서 보듯, 유인적 모델에 익숙한 교회는 성공의 지표를 좌석 점유율에서 파송 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정서적, 운영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단순한 전략 변경이 아닌, 공동체의 자기 이해를 바꾸는 신학적 작업을 요구한다.<sup>93</sup> "우리는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선언이 공동체의 활기를 회복시킨 AICC의 경험은, 정체성의 재정립이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임을 시사한다.

둘째, 리더십의 역할 변화 문제이다. APC 패러다임 아래서 목회자는 주로 강사, 경영자,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MRI-EPIC 패러다임은 목회자를 선교적 탐험가, 관계의 촉매제, 문화적 해석자로 재정의한다. AICC는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이끌었고, 갈등 상황에서 성육신적 해법을 모색하는 문화적 해석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리더십 전환은 목회자 평가 기준과 신학교육 체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sup>94</sup>

셋째, 문화적 언어 습득의 장벽 문제이다. 포스트모던·복합적 문화의 EPIC 코드는 많은 기성 교인과 지도자에게 낯선 언어다. AICC가 체험적, 참여적, 이미지 중심적, 연결적 소통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에는 저항과 실패가 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인내와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함'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sup>95</sup>

넷째, MRI 세 요소의 통합적 적용 문제이다. AICC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선교적 실천, 관계적 소통, 성육신적 접근은 분리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상호 내재적(perichoretic) 관계에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중 한 요소에 집중하다 다른 요소를 소홀히 하기 쉽다. 예를 들어, 선교적 실천에 몰두하다 관계적 깊이를

<sup>93</sup> Hirsch, *The Forgotten Ways*, 60-85.

<sup>94</sup> Ibid., 110-135.

<sup>95</sup> Sweet, *Postmodern Pilgrims*, 30-45

상실하거나, 성육신적 접근에 집중하다 선교적 지향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MRI 세 요소의 균형 잡힌 통합은 지속적인 성찰과 조정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 2. MRI-EPIC 모델의 신학적·선교적 의의

AICC 사례는 MRI-EPIC 모델이 단순한 방법론적 제안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구현하는 신학적 프레임임을 보여준다.

첫째, 삼위일체적 교회론의 실천적 구현이다. MRI 세 요소의 상호 내재적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본질을 교회론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성육신적 접근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선교의 근원을, 관계적 소통은 성령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관계의 역동성을, 선교적 실천은 아들과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의 참여를 각각 반영한다.

둘째, 복음의 초문화적 본질과 문화적 토착화의 변증법이다. MRI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복음의 불변적 핵심(운영체제)이라면, EPIC은 그 복음이 각 시대와 문화 속에서 소통되는 방식(인터페이스)이다. AICC의 사례는 일본 문화 속에서 킨즈기, 자수, 일본의 절기 등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성육신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관계적 제자도의 회복이다. AICC의 식탁 나눔, 기도일기, 청년 외부 활동은 제자도를 단순한 교리 교육이 아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전염되는 신앙'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는 포스트모던 세대가 추구하는 '진리의 관계적 전달'에 부응하는 제자도 모델이다.

## 3. 국제교회 모델이 전통 일본 교회에 주는 도전과 격려

AICC와 같은 다문화 국제교회 모델은 전통적인 단일문화 일본 교회에 양가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편으로, 그들의 유연성과 문화적 접근성은 폐쇄적이고 고정관념이 강한 교회 문화에 도전을 제기한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포용하는 AICC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단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전통 일본 교회에게 '타자'를 향한 개방성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모델이 일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단일문화 일본인에게 동일한 효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ICC의 다문화적 특수성이 오히려 주류 일본인에게는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격려는, MRI-EPIC 모델의 핵심이 다문화적 구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하면서 문화에 성육신하려는 태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통 일본 교회는 자신의 '우편번호'(단일문화 지역이라 할지라도)에 동일한 성육신적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 이 모델의 정수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중요한 것은 '다문화'라는 구성적 특성이 아니라, '타문화' 혹은 '타자'를 향한 성육신적 마음이다.

## B. 실천적 제언: 일본 교회 재설계를 위한 3단계 로드맵

### 1. 1단계: 진단과 마인드셋 전환 (From APC)

이 단계의 목표는 현재 상태를 직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APC 진단 도구를 활용한 자가 평가: 교회 지도부와 핵심 교인들이 함께

유인적(Attractional), 명제적(Propositional), 식민적(Colonial) 요소가 예배, 제자도, 지역 관계, 타문화 인식 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의 성장 지표는 주로 출석 인원애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설교와 교육이 명제적 지식 전달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다른 문화나 세대를 우리의 방식으로 동화시키려는 태도는 없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자기 진단을 수행한다.

선교적(Missional) 비전 재정립을 위한 성경 공동 연구: 대위임령(마 28:18-20),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빌 2:5-11)을 함께 연구하며, 교회 존재의 근본 목적을 '보냄'으로 재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AICC가 경험했던 "우리는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정체성 선언이 공동체의 언어로 자리잡도록 돕는다.

## 2. 2단계: 핵심 실천 도입 및 훈련 (To MRI-EPIC)

이 단계에서는 소규모 실험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체험하고 배우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시스템 교체보다는 '작은 시작'을 통해 학습과 적응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 APC 진단 도구를 활용한 자가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첫걸음은 현재 상태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다. 교회 지도부와 핵심 교인들은 함께 모여 APC(유인적-명제적-식민적) 요소가 예배, 제자도, 지역 관계, 타문화 인식 등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진단 질문들을 활용할 수 있다.

#### ○ 유인적(Attractional) 모델 진단 질문:

• "우리 교회의 성장 지표는 주로 출석 인원과 헌금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파송되는 제자들의 수와 그들의 영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 "교회 예산 중 건물 유지비와 내부 프로그램에 쓰이는 비용과 지역 사회 섬김 및 선교적 실천에 쓰이는 비용의 비율은 어떠한가?"

• "예배의 초점이 '오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와 만족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가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데 맞춰져 있는가?"

•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면 지역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가?"

○ *명제적(Propositional) 소통 진단 질문:*

• "우리 교회 예배는 주로 '듣는' 예배인가, 아니면 '경험하고 참여하는' 예배인가?"

• "설교와 교육이 교리적 지식 전달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삶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는 관계적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가?"

• "교인들이 신앙을 '이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오감을 통해 '체험하고 맛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 "다음 세대(청년, 어린이)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이미지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 *식민적(Colonial) 접근 진단 질문:*

• "다른 문화나 세대를 우리의 방식으로 동화시키려는 태도는 없는가?"

• "교회의 운영 방식과 문화가 특정 세대나 문화적 배경(예: 서구적, 한국적, 장년층 중심)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 "우리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는가?"

- "지역 사회의 고유한 문화(일본의 전통적 절기, 지역 축제 등)를 단순히 '이교적'으로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성육신적으로 소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가?"

이러한 진단 질문들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성찰하는 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AICC의 사례에서 보았듯, '30명의 벽'이라는 위기는 이러한 근본적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우리는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선교적 정체성의 재발견으로 이어졌다.

- 선교적(Missional) 비전 재정립을 위한 성경 공동 연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는 선교적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한 성경 공동 연구에 들어간다. 대위임령(마 28:18-20),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빌 2:5-11)을 함께 연구하며, 교회 존재의 근본 목적을 '보냄'으로 재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AICC가 경험했던 "우리는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정체성 선언이 공동체의 언어로 자리잡도록 돕는다.

- 관계적(Relational) 제자도 그룹 재설계

기존의 성경 공부 모임을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책임지는 제자도 썬클(Discipleship Circle)로 전환한다. AICC의 '성경회' 모델처럼, 지식 전달보다 관계적 투명성과 증보가 강조되어야 한다. 매 모임을 식탁 나눔으로 시작하는 것은 관계적 연결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우편번호' 선교(성육신적 Incarnational)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교회 반경 1km 내의 '우편번호'를 선정하여, 그곳의 구성원, 필요, 문화를 탐색하는 '지역 청취'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AICC가 기능실습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일정에 맞춘 성경회를 제공했던 것처럼, 단순한 봉사가 아닌 지속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 소규모 프로젝트(예: 지역 카페와의 협업, 공원 미화 활동, 독거노인 반찬 나눔)를 시작한다.

- 예배와 소통에 EPIC 요소 점진적 도입

한 달에 한 번, 기존 예배에 하나의 EPIC 요소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 체험적(Experiential) 요소: 관상 기도 시간 도입, 성찬식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순서 마련
- 참여적(Participatory) 요소: 설교 후 회중이 질문하거나 나눔을 나누는 시간 도입, 예배 준비에 다양한 세대 참여
- 이미지 중심적(Image-rich) 요소: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상징하는 간단한 물건(예: 키크기 기법으로 만든 도자기 조각, 자수 작품)을 회중들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거나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준비
- 연결적(Connective) 요소: 온라인 기도나눔방 개설, 가족 단위 혹은 부서별 외부 활동을 통한 관계망 강화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교회가 APC의 한계를 인식하고, MRI-EPIC 패러다임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실천적 로드맵을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단계에서 '완벽한 실행'보다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의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다.

### 3. 3단계: 문화화 및 지속 가능성 구축 (As MRI-EPIC)

새로운 실천이 교회 문화와 구조에 뿌리내리도록 공고히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교회의 노력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생태계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MRI-EPIC 실천 공유 커뮤니티 형성

동일한 비전을 가진 인근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성공과 실패 사례, 자원을 공유한다. 고립된 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 AICC의 사례처럼, 서로의 도전과 학습을 나누는 공동체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 정기적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MRI-EPIC 실천 교회들이 모여 사례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여기에 신학자, 선교학자, 실천 현장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하면 이론과 실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본형 MRI-EPIC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지속적인 소통과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각 교회의 예배 순서지, 교육 자료, 설교 원고, 지역 사회 프로젝트 기획안 등이 아카이빙되어, 필요할 때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교회 맥락에 맞게 변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open source)' 형태로 운영한다. 또한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교단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개별 교회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넘어, 교단 차원에서 MRI-EPIC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교단 산하에 '선교적 교회 위원회'나 '교회 갱신 지원팀'을 구성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원하는 교회에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인 목회자 세미나와 연수 프로그램에 MRI-EPIC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교단 산하 신학교와 협력하여 차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이미 MRI-EPIC 모델을 실천하고 있는 선도 교회(mentor church)가 뒤따르는 교회(mentee church)와 1:1로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AICC와 같은 실험적 교회가 전통적 일본 교회의 전환 과정을 돕는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와 영적 지지가 전수된다.
-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양한 교회의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MRI-EPIC 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패턴과 원리를 도출하고, 각 교회의 상황(도시/농촌, 대형/소형, 단일문화/다문화 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MRI-EPIC 정신을 반영한 교회 구조와 예산의 재편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물 유지비에 할당되던 예산의 일부를 '우편번호 선교 프로젝트'에 재배정하거나, 교육부서의 프로그램을 관계적 제자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한다. 또한 목회자 평가 기준을 설교와 행정 능력 중심에서 선교적 리더십과 관계적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 차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제안

신학교 및 목회자 연수 프로그램에 MRI 운영체제(선교신학, 관계적 제자도, 문화성육신)와 EPIC 인터페이스(현대 소통학, 체험 교육학, 문화적 해석학)에 관한 필수 과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는 개별 교회의 노력을 넘어, 일본 교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APC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고, MRI-EPIC 패러다임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신학교육 과정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 C. 연구의 이론적 기여와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여를 가진다.

첫째, 일본 교회의 위기를 APC 패러다임(유인적-명제적-식민적)이라는 개념적 틀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MRI-EPIC(선교적-관계적-성육신적 운영체제와 체험적-참여적-이미지 중심적-연결적 인터페이스)이라는 통합적 대안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이론적 기여를 한다. 기존의 일본 교회 위기론이 주로 문화적 장벽, 선교 방법론의 부재, 혹은 역사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이를 교회의 근본적 '운영체제(OS)'의 문제로 재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교회 갱신 논의를 방법론적 차원을 넘어 운영체제(OS)와 인터페이스(UI)의 이중적 전환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표면적 프로그램 변경이나 부분적 방법론 수정이 아닌, 교회의 자기 이해(정체성), 소통 방식(언어), 타자와의 관계 설정(문화적 태도)의 근본적 재설정 필요성을 개념화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일본 교회뿐 아니라, 포스트모던 사회에 직면한 다양한 문화권의 교회에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셋째, MRI 세 요소(선교적, 관계적, 성육신적) 간의 상호 내재적(perichoretic) 순환 관계를 AICC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각 요소가 독립적이기보다 삼위일체적으로 통합되어 작동함을 보여주며, 선교적 교회론을 신학적으로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관계적 소통'이 단순한 친교를 넘어 '선교적 실천'과 '성육신적 접근'을 내포하고, '성육신적 접근'이 다시 '관계적 소통'과 '선교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순환적 역동성은 포스트모던 선교 현장에서 중요한 실천적 통찰을 제공한다.

넷째,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위해 일본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점은 한국어 학술 논문에서 상대적으로 드문 시도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 6개월간의 장기 참여관찰과 6개월간의 집중 자료 수집 기간 동안 확보한 풍부한 질적 자료(면접 인용문, 참여관찰 일지, 문서 자료)는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 또한 연구 방법론을 상세히 기술하고, 삼각측량, 구성원 검토, 동료 검토 등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이는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사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 한계이다. 본 연구는 단일 교회(AICC)에 국한된 사례 연구로서, 그 결과를 모든 일본 교회에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AICC는 국제교회라는 특수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개척자의 비전과 헌신이 모델 실행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단일문화 일본인 교회, 농촌 지역의 고령화 교회, 혹은 도시의 대형 교회에 적용할 때 예상치 못한 변수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통적 단일문화 일본 교회를 대상으로 한 실행 연구(action research)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MRI-

EPIC 모델의 원리를 특정 교회의 맥락에 맞게 변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도전과제, 적응 전략, 그리고 변화의 동력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더욱 풍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 추이 관찰의 부재이다. AICC의 MRI-EPIC 모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 변형, 혹은 퇴행할지에 대한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가 수행되지 않았다. 패러다임 전환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과정이므로, 초기 전환 이후 5년,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모델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며,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개척자의 리더십에서 차세대 리더십으로의 이양 과정, 공동체의 성장에 따른 구조적 변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과정 등에 대한 장기적 관찰은 MRI-EPIC 모델의 지속 가능성 평가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정량적 효과 측정의 부재이다. 본 연구는 질적 방법론을 통해 모델의 구현 양상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MRI-EPIC 모델의 정량적 효과를 측정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모델 적용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정량적 검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제안된다:

- 모델 적용 교회와 미적용 교회의 비교 연구: 단순한 교인 수 변화뿐 아니라, 교인 한 사람당 평균 지역 사회 봉사 시간, 교회 내 소그룹 참여율, 세대 간 교류 빈도, 신규 방문자의 정착률, 청년층 유입률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측정 연구: MRI-EPIC 모델이 교회 내부의 결속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회 외부와의 연결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신뢰도, 호혜성 규범, 네트워크 밀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세대 전이율 측정 연구: MRI-EPIC 모델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청년층의 교회 잔류율, 신앙의 내면화 정도, 부모 세대와의 신앙적 대화 빈도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전통적 모델을 유지하는 교회와 비교 분석할 수 있다.
- 지역 사회 기여도 측정 연구: 교회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회가 제공하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의 양적 규모(참여 인원, 봉사 시간, 지원 금액), 지역 주민의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지역 내 다른 기관(학교, 복지관, 지자체)과의 협력 관계 구축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넷째, 연구자의 참여관찰로 인한 잠재적 편향 가능성이다. 연구자는 2021년 교회 개척 초기부터 구성원으로 참여해왔으며 장기 관찰을 수행한 것은 풍부한 자료 확보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분석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각측량, 구성원 검토, 동료 검토 등의 전략을 사용했으나, 질적 연구의 해석학적 특성상 연구자의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다중 연구자 연구나, 연구자와 현장의 거리를 유지하는 외부 연구자에 의한 검증 연구 등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비교 문화적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일본이라는 특정 문화적 맥락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MRI-EPIC 모델이 제안하는 선교적 정체성, 관계적 소통,

성육신적 접근은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지닌 개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교회 맥락에서의 비교 문화적 연구가 필요하다. 각 문화권의 고유한 종교적 토양(한국의 샤머니즘적 배경, 중국의 유교적 전통 등)과 포스트모던 문화의 수용 양상에 따라 MRI-EPIC 모델이 어떻게 변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모델의 문화적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일본과 달리 양적 성장을 경험했으나 최근 정체와 쇠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일본 교회의 위기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비교하는 연구는 동아시아 교회의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이 축적될 때, MRI-EPIC 모델은 단일 사례에 기반한 이론적 제안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상황적 맥락에서 검증되고 발전되는 살아있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 A. 연구 요약: 일본 교회 위기의 근원과 대안 패러다임

본 연구는 인구의 0.4% 미만에 머무르며 지속적인 쇠퇴와 고령화, 신앙 승계 단절, 사회적 고립에 직면한 일본 개신교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하고,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대안적 교회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일본 교회 위기의 근본 원인은 모더니즘 시대에 형성된 APC 패러다임-유인적(Attractional), 명제적(Propositional), 식민적(Colonial) 운영체제-에 머물러 있음에 있었다. 이 패러다임은 일본 사회의 심층적 문화 코드(화 의식, 집단 귀속 의식, 수치 문화)와 근본적으로 충돌하였으며,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체험, 참여, 이미지, 연결의 문화적 언어(EPIC)와 심각한 괴리를 보이며 교회를 점차 사회로부터 고립된 '문화적 섬'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개념을 발전시켜 MRI 운영체제와 EPIC 인터페이스가 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MRI(선교적-Missional, 관계적-Relational, 성육신적-Incarnational)는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적 운영체제로, '오라'에서 '가라'로의 선교적 정체성 전환, 명제적 동의에서 관계적 제자 됨으로의 공동체 재정의, 식민적 동화에서 구체적 '우편번호'에 대한 성육신적 사랑으로의 접근법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EPIC(체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이미지 중심적-Image-rich, 연결적-Connective)는 이

운영체제를 포스트모던 문화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소통 인터페이스이다.

이 이론적 모델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본 나고야의 아이신그리스도국제교회(AICC)를 대상으로 4년 6개월간의 장기 참여관찰과 6개월간의 집중 자료 수집을 포함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AICC는 APC 패러다임의 한계를 의식적으로 극복하고, MRI-EPIC 모델의 요소들을 다문화 공동체와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B. 연구의 핵심 발견: MRI-EPIC 통합 모델의 현장 구현과 역동성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 발견은 MRI의 세 요소(선교적-관계적-성육신적)가 형성하는 상호 내재적(perichoretic) 순환 구조와, 이 운영체제가 EPIC 인터페이스를 통해 문화적으로 번역되는 순환적 상호 강화 관계에 있다.

첫째, APC에서 MRI로의 점진적 전환 과정의 확인이다. AICC는 개척 초기 유인적 모델(프로그램 중심 전도), 명제적 소통(강해 설교 중심), 식민적 접근(민족 정체성 갈등)이라는 APC 패러다임에서 출발했으나, '30명의 벽'이라는 양적 한계, 교인들의 피로감,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한 이탈 사건이라는 위기를 통해 MRI 패러다임으로 점진적 전환을 경험했다. 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위기와 성찰을 통한 과정적 여정임을 보여준다.

둘째, MRI 세 요소 간의 상호 내재적(perichoretic) 순환 관계의 발견이다. AICC 사례 분석 결과, 선교적 실천, 관계적 소통, 성육신적 접근은 독립적 범주가 아니라 서로를 전제하고 강화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었다.

- 선교적 실천은 관계적 소통과 성육신적 접근을 전제한다. AICC의 기능실습생 지원과 지역 사회 섬김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육신적 접근과 그들의 언어와 필요를 이해하는 관계적 소통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선교로 기능할 수 있었다. 선교는 관계와 문화적 토착화 없이 공허한 활동으로 전락한다.
- 관계적 소통은 선교적 실천과 성육신적 접근을 지향한다. 식탁 나눔과 기도일기로 대표되는 AICC의 관계적 소통은 공동체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고립된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선교적 실천으로 확장되었으며, 그들의 구체적 삶의 자리(성육신적 접근)와 연결되었다. 관계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선교와 성육신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 성육신적 접근은 관계적 소통과 선교적 실천을 내포한다. 일본의 성인식, 장례 문화, 가정 제단 문제에 대한 AICC의 성육신적 접근은 단순한 문화적 수용에 그치지 않고, 그 문화 속에서 관계를 맺고(관계적 소통), 그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성육신은 문화적 적응에 머물지 않고 관계와 선교를 향해 열려 있다.

이는 MRI의 세 요소가 삼위일체적 성격을 지님을 시사한다. 각 요소는 다른 요소와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구현될 때 다른 요소들도 함께 구현되는 상호 내재적(perichoretic) 관계를 형성한다. 이 관계는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닌, 동시적이고 순환적인 상호 강화의 역동성을 지닌다.

셋째, MRI 운영체제와 EPIC 인터페이스의 순환적 상호 강화 관계의 발견이다. MRI 운영체제(본질)는 EPIC 인터페이스(소통 방식)를 통해 구체화되고 전달되었으며, EPIC 인터페이스의 경험은 다시 MRI 운영체제의 내용을 강화하고 심화시켰다.

- 선교적 정체성(M)은 참여적 활동(P)을 통해 훈련되고 내면화된다. 국제식탁교류회와 아웃리치는 교인들이 '보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몸으로 체득하는 장이 되었다.
- 관계적 소통(R)은 체험적(E) 요소와 연결적(C)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장된다. 패밀리 워십과 오감을 통한 성찬 체험은 관계를 몸으로 체현하게 하며, SNS를 활용한 기도일기와 청년 외부 활동은 공간적 한계를 넘어 관계망을 확장시킨다.
- 성육신적 접근(I)은 이미지 중심적(I) 소통을 통해 문화적으로 번역된다. 킨츠기와 자수 비유, 절기별 공간 연출은 복음을 일본인의 심층 감수성(와비사비 미학)에 호소하는 언어로 전환시킨다.
- 연결적 요소(C)는 EPIC 전체의 접착제로서, 경험, 참여, 이미지를 하나의 살아 있는 관계 네트워크로 통합한다.

이러한 순환적 관계는 MRI와 EPIC이 단순한 도구-내용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장하는 유기적 통합체임을 보여준다. EPIC은 MRI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MRI의 내용을 교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확장'하는 순환적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다문화적 맥락에서 MRI-EPIC 모델의 실현 가능성 확인이다. AICC는 국제교회라는 특수성을 지니지만, 그 핵심은 다문화적 구성 자체가 아니라 복음에 충실하면서 문화에 성육신하려는 태도에 있었다. 이는 전통적 단일문화 일본 교회도 자신의 '우편번호'에 동일한 성육신적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 MRI-EPIC 모델의 정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 최종 주장: 지속 가능한 갱신은 MRI-EPIC의 순환적 역동성을 통한 운영체제 전환에서 온다

본 연구의 최종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 교회의 지속 가능한 갱신과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의 관련성 회복은 기존 APC 패러다임 내에서의 단순한 '방법 수정'이나 '프로그램 추가'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교회의 자기 이해, 소통 방식, 타자와의 관계 설정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운영체제(OS) 자체를 APC에서 MRI-EPIC으로 재설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전환의 핵심은 MRI 세 요소의 상호 내재적 순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운영체제가 EPIC 인터페이스를 통해 문화적으로 번역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 선교적 실천이 관계적 소통과 성육신적 접근을 전제하고, 관계적 소통이 선교와 성육신을 지향하며, 성육신적 접근이 관계와 선교를 내포할 때, 그리고 이러한 MRI의 역동성이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연결이라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언어(EPIC)로 효과적으로 소통될 때, 교회는 진정한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근본 질문	APC 패러다임	MRI-EPIC 패러다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유인적(Attractional) 모델: 사람을 교회 건물로 오게 하는 것	선교적(Missional) 정체성: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
진리는 어떻게 전달되고 공유되는가?	명제적(Propositional) 소통: 교리적 지식의 논증적 전달	관계적(Relational) 소통과 EPIC 인터페이스: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연결을 통한 관계적 전달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식민적(Colonial) 접근: 타문화를 우리의 방식으로 동화시킴	성육신적(Incarnational) 접근: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 언어와 상징으로 복음을 번역함

(표 3) 지속 가능한 갱신을 위한 근본 질문

제5장에서 제안한 3단계 로드맵(진단-도입-문화화)은 이러한 순환적 역동성을 교회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로드맵이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가 자신의 맥락에서 MRI-EPIC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 안내'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 D. 연구의 희망적 전망: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 속에서 순환적 역동성을 살아내는 교회

일본 교회의 통계적 수치는 암울해 보인다. 그러나 AICC의 사례는 MRI-EPIC의 순환적 역동성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활력이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MRI의 세 요소가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이 본질이 EPIC이라는 문화적 언어로 효과적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적 역동성을 통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희망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 고립에서 연결로: 관계적 소통(R)과 연결적 인터페이스(C)의 결합은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를 진정한 관계적 연결망의 허브로 만든다. AICC의 '기도일기'와 '식탁 나눔'은 기술적 연결(technical connectivity)을 진정한 관계적 연결(relational connectivity)로 전환시키는 모델을 제시한다.
- 단일문화에서 다문화 포용으로: 성육신적 접근(I)과 이미지 중심적 소통(I)의 결합은 복음이 특정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문화를 품는 보편적 진리임을 드러낸다. AICC의 언어적 포용(6개국어 설교 원고, 크메르어 주보)과 문화

적 수용(중국 명절, 일본 성인식), 이미지 중심적 소통은 복음이 특정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문화를 품는 보편적 진리임을 보여준다.

- 수동적 관람에서 능동적 참여로: 선교적 정체성(M)과 참여적 활동(P)의 결합은 회중을 수동적 관객이 아닌 공동 창작자로 초대한다. AICC의 패밀리 위십과 국제식탁교류회는 회중을 수동적 관객이 아닌 공동 창작자(co-creator)로 초대하며, 이를 통해 교인들은 자신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갈 역량을 훈련받는 장이 된다.
- 과거의 유산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성육신적 접근(I)과 체험적 요소(E)의 결합은 전통과 문화 속에서 복음을 새롭게 번역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거듭나게 한다. AICC의 '킨즈기(金継ぎ)' 비유는 이러한 전환의 대표적 사례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일본 전통공예를 통해 '죄인 된 우리'라는 결핍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히려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으로 재창조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일본 전통 미학(와비사비)을 복음의 언어로 번역하였다. 이는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부정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미의식과 정서를 통해 복음을 새롭게 조명하는 성육신적 접근의 모범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통과 문화는 복음과 대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AICC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APC 패러다임에서 갈등과 한계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MRI-EPIC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MRI-EPIC의 순환적 역동성이 현장에서 구현되면서 새롭게 활력이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여정은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선언 속에서, 선교적 정체성이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계적 소통이 고립된 이들을 공동체로 초대하며, 성육신적 접근이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경험을 하고 있다.

MRI-EPIC 패러다임은 이러한 헌신을 위한 청사진이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복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각 교회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특정 '우편번호'에 보냄 받은 공동체임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MRI)를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EPIC)로 살아낼 때, MRI 세 요소의 상호 강화와 MRI-EPIC의 순환적 번역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는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일본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분명 깊고 구조적이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전환의 기회이기도 하다. APC 패러다임의 한계가 분명해질수록, MRI-EPIC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선명해진다. 본 연구가 이 어렵지만 필수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일본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 신학자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이러한 순환적 역동성을 회복하는 용기 있는 공동체에게 열려 있다. 그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요 17:18)고 말씀하신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 신뢰 위에 세워진 공동체만이, 포스트모던 일본 사회 속에서 희망의 신학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외국 서적

- Bailey, Kenneth E.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 Cultural Studies in the Gospels*.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8.
- Barth, Karl. *Kirchliche Dogmatik*. 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2-1967.
- Blomberg, Craig L. *Interpreting the Parables*. 2nd e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2.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 Chichester, UK: Wiley-Blackwell, 2010.
- Cole, Neil. *Organic Church: Growing Faith Where Life Happen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5.
- Dyrness, William A. *Reformed Theology and Visual Culture: The Protestant Imagination from Calvin to Edwar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Innovation and Mission for the 21st-Century Chur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 Gnanakan, Ken. *Proclaiming Christ in a Pluralistic Context*. Rev. ed. Bangalore: Theological Book Trust, 2002.

- Guder, Darrell L.,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 Guder, Darrell L., et al.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 Hendry, Joy. *Understanding Japanese Society*. 3rd ed. London: Routledge, 2003.
- Hirsch, Alan. *The Forgotten Ways: Reactivating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6.
-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The Missionary Obligation of the Church: Report of the Willingen Conference*. London: IMC, 1952.
- Ion, A. Hamish. *The Cross and the Rising Sun*. 2 vols. Waterloo, ON: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90-1993.
- Koren, Leonard. *Wabi-Sabi for Artists, Designers, Poets & Philosophers*. Berkeley, CA: Stone Bridge Press, 1994.
- Lebra, Takie Sugiyama. *Japanese Patterns of Behavio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6.
- Lyotard, Jean François.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lated by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McGavran, Donald 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0.
- Mitchell, W. J. T. *Picture Theory: Essays on Verbal and Visual Represent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Moltmann, Jürge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Mullins, Mark R. *Christianity Made in Japan: A Study of Indigenous Move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9.
- Reader, Ian. *Religion in Contemporary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 Shibuya, Hiroshi. *The Japanese and Christianity*. London: SPCK, 1994.
- Sweet, Leonard. *AquaChurch: Essential Leadership Arts for Piloting Your Church in Today's Fluid Culture*. Loveland, CO: Group Publishing, 1999.
- Sweet, Leonard. *From Tablet to Table: Where Community Is Found and Identity Is Formed*. Colorado Springs: NavPress, 2014.
- Sweet, Leonard. *I Am a Follower: The Way, Truth, and Life of Following Jesus*. Nashville: Thomas Nelson, 2012.
- Sweet, Leonard. *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s Already There*.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2010.
- Sweet, Leonard. *Post-Modern Pilgrims: First-Century Passion for the 21st-Century Church*.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 Sweet, Leonard. *So Beautiful: Divine Design for Life and the Church*.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2009.
- Sweet, Leonard. *SoulTsunami: Sink or Swim in New Millennium Culture*. Grand

- Rapids: Zondervan, 1999.
- Sweet, Leonard. *The Church of the Perfect Storm*.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 Sweet, Leonard.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Living with a Grande Passion*. Colorado Springs: WaterBrook Press, 2007.
- Turkle, Sherry.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2011.
- Turkle, Sherry. *Reclaiming Conversation: The Power of Talk in a Digital Age*. New York: Penguin, 2015.
- Walls, Andrew F.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 Wells, David F.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3.
- Wellman, Barry, and Lee Rainie. *Networked: The New Social Operating System*. Cambridge, MA: MIT Press, 2012.
- Yin, Robert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4.

## 2. 일본어 원서

- 井上順孝. 『日本人の宗教観』. 東京: 講談社現代新書, 1991.
- 総務省統計局. 『令和2年国勢調査』. 総務省, 2020.
- 竹内芳郎. 『日本文化の構造』. 東京: 岩波書店, 1984.

日本基督教団. 『日本基督教団年鑑 2023』. 東京: 日本基督教団出版局, 2023.

文化庁. 『宗教年鑑』. 東京: 文化庁, 最新版.

内田樹. 『若者と日本文化』. 東京: 講談社, 2008.

真鍋一史. 『デジタルネイティブの時代』. 東京: NHK出版, 2015.

### 3. 번역 서적

Benedict, Ruth. 『菊と刀(日本文化型)』. 長谷松治 역. 東京: 現代教養文庫, 1975.

會田雄次. 『일본인의 의식구조』. 최명순 역. 서울: 자유문화사, 1978.

본회퍼, 디트리히. 『나를 따르라』. 김재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본회퍼, 디트리히. 『성도의 교제』. 김재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4. 한국어 서적

택정언. 『일본기독교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일본복음선교회(JEM). 『제8회 일본선교 아카데미 자료집』. JEM, 2023.

### 5. 학술논문

Braun, Virginia, and Victoria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no. 2 (2006): 77-101.

Hartenstein, Karl. “Die Mission als theologisches Problem.” In *Theologische*

*Probleme der Mission*, 1934.

John of Damascus. “The Orthodox Faith.”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37.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8.

加藤陽一. 「ポストモダン時代における日本プロテスタント教会の伝道の課題」『日本神学』58 (2020): 1-20.

강기철. “일본 고독사 통계에 관한 연구.” 『日本語教育』 113 (2025): 111-128.